

복고열풍… 셀프 물결펌 뜬다

metro®

메트로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제333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5일>

코스피	2049.41	(-3.36)
코스닥	694.43	(+8.25)
금리(국고채 3년)	1.69	(+0.01)
환율(원·달러)	1138.50	(+5.00)

中 기축통화국 임박… 韓 '싱긋'

<위안화>

"21세기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니라 화폐다." (쑹훙빙 중국 글로벌재경연구원장 저서 '화폐전쟁')

"현재 국제통화 시장의 83%가 달러화다. 위안화는 7~8%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에 달가워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조셉 나이(조지프 나이라고도 부름) 미국 하버드대학 석좌교수)

지난 2009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G2(미국과 중국) 간의 '기축통화 전쟁'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5면>

중국 위안화가 이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기 때문이다. 최대 경쟁자인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켜 위안화의 국제적 파워를 키우려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셈법은 복잡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위안화 허브의 입지를 다질 수도 있다.

◆ 이번엔 편입되나

5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말쯤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기축통화 후보로 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5년전 퇴짜를 맞은 이유는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와 위안화 결제비율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2010년에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2010년에만 해도 0%대로 미미했던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 비중도 지난 8월 2.79%까지 상승해 엔화(2.76%)를 제치고 4위 결제통화로 올라섰다.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5.81%), 영국(4.29%), 프랑스(4.29%) 등 유럽국가들은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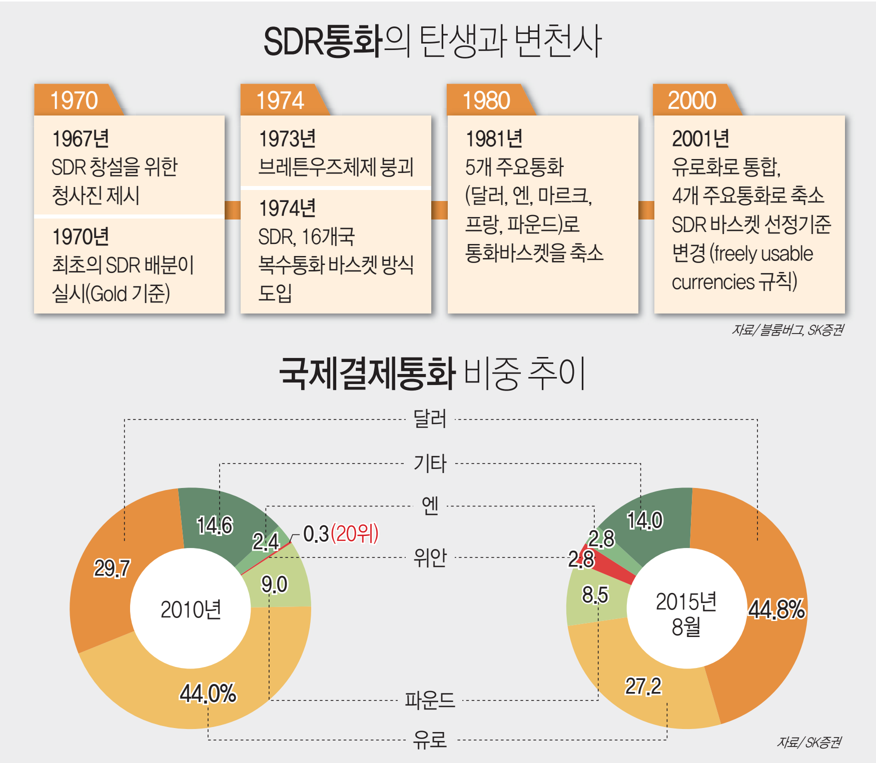
관건은 미국(16.75%)이다. IMF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쥔 미국이 반대하면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미국 방문 시 오바마 정부로부터 위안화의 SDR 가입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원의지가 약한게 현실이다.

일본(6.23%)의 견제도 걸림돌이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 중국 외환시장은 여전히 거래에 제약이 있는데다 역내외 환율간 괴리가 있다. 이는 개선돼야 할 점이다.

SDR는 IMF가 1969년 만든 가상의 통화로 달러화와 금에 편중된 국제준비통화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통화바스켓 구성비율은 달러화 41.9%,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4%다.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고 보유한 SDR 규모 내에서 통화바스켓에 속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4개 통화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다. 188개 IMF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출자비율은 1.41%, 투표권은 1.37%로 19위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달러화에 약간의 흠집은 생기겠지만 달러화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질서인 '팍스 달러리즘'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년 만에 편입여부 재심사
獨·英·佛 등 유럽국가 지지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상승
지리적 잇점 활용 '허브' 기대
한국도 中 전략에 맞장구

◆ 한국 득실은, 주식시장·수출기업 호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셈법이 복잡하다. 금융시장시장에는 득이 많아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는 주변국의 통화 절상과 함께했다. 한국의 위안화 보유와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산가치 안정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상품 투자 기회도 더 커질 수 있다.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은 위안화의 강세 요인이며 국내 주식시장 상승은 대부분 주변국의 통화절상 추세와 함께 나타났다"면서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주식시장 상승, 채권시장 약세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사실 위안화의 SDR 편입이 한국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만 2013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금융시장 동조화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안화 강세와 중국 금리 하락이 원화와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동향분석실장은 "위안화 SDR 편입은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에 맞는 수준으로 위안화의 가치도 높아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는 지속되겠지만 위안화로 인해 기축통화가 다극화 된다면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은 "실물경제와 통화가 괴리가 있으면 부작용이 많은데, 경제 기초여건이 맞닿아 있는 중국의 위안화를 쓰면 괴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시아 기업들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개별기업이나 개인 처지에서 보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시, 문턱 낮춘다

앞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도 증시 문턱을 밟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 상장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으로는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익 30억원(3년 합계 6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주로 현재의 실적에 초점을 둔 상장 요건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이익이나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현재 이익·매출 미흡해도
성장 기대 큰 기업에 기회

이를 위해 시가총액(상장예정 주식수×공모가) 20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시가총액 2000억원·이익 50억원, 시가총액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 등으로 상장 요건을 다양화했다.

장영은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기업,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상장 편의성과 기회를 확대하고자 요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요건 내 양도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어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하고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양도제한의 경우 탄력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 시 상장법인 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간소화된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 기업이 분할 재상장하는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 절차)을 적용 받게 됐다. /김문호 기자

Genesis is moving forward to catch up with Audi.

제네시스 나가신다. 아우디 섰거라



'Genesis' was selected as Hyundai Motors' premium car that would compete with Infinity from Nissan, Toyota's Lexus and Audi from Volkswagen. Hyundai Motors announced its plan to enter into the premium car market that is growing fast globally after launching 'Genesis' as a global brand. Hyundai's plan is to launch 6 premium cars which will allow the company to compete with the world's leading car brands.

Hyundai Motors announced its launch plan of the premium car 'Genesis' on the 4th at Dongdaemun Design Plaza(DDP). The company's strategy is to use one of its cars' name 'Genesis' as a brand name which is thought to have made history in large premium sedan with its high level of awareness in global market, great design and outstanding performance.

The company is planning to start with the existing second generation Genesis and the large premium sedan at the beginning of the brand launch and then it will develop additional 4 models in 5 years which enables the company to build its premium car line-up with 6 cars in total.

Jung Eui-Sun, the vice-chairman of Hyundai Motors, said "The reason why we take on a new challenge is because of out customers" "The brand Genesis pursues 'People-oriented progress'" stipulating the direction of the brand.

폭스바겐의 아우디,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등에 맞설 현대차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선정됐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공식 출범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고급차 6종으로 라인업을 구축해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맞대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PP)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론칭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성능·디자인 등에서 대형 럭셔리 세단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제네시스를 고급 브랜드의 대표명으로 확대해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브랜드 론칭 초기에는 기존 2세대 제네시스 차량과 다음 달 출시되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시작한 뒤 향후 5년간 4종의 신규 모델을 추가 개발해 6종으로 고급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오직 고객에게 있다"면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인간 중심의 진보'를 지향한다"고 브랜드의 방향성을 규정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폴크스바겐**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가 불일치하다고 밝힌 차량 가운데 휘발유 차가 9만8000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폴크스바겐은 주가가 폭락하고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함께 공식 출범한 캐나다의 자유당 내각은 역대 내각 중 가장 파격적 면모를 드러냈다. 트뤼도 총리는 원주민 출신, 정치신인, 이민자 출신을 과감하게 내각에 발탁했다.

▲ 중국이 베이징과 허베이의 장자커우를 잇는 고속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징장 고속철'**로 불리는 이 고속철은 총연장 174㎞로 584억1000만 위안(10조 4495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4년 6개월이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한 '8·25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군이 독도 수호와 대북압박 포석으로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면 서북도서와 제주도, 울릉도를 잇는 'U'자형 전략도서 방어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이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가족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와 소속 교사들이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독도 고지도' 담은 내년 영문 달력 해외 배부 경북도는 5일 동해와 독도의 고지도를 담은 '2016년 독도 고지도 영문 달력'을 해외에 보냈다. 모두 2천500부를 52개국의 단체와 개인에게 배부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내년에는 전체 TV 시장에서 **초고해상도(UHD) TV**의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UHD TV 가격도 크게 떨어질 예상된다. 139.7㎝(55인치) 오픈셀(모듈 공정을 거치지 않은 반제품 형태) UHD LCD TV 패널의 평균판매가격은 최근 255달러(약 29만원)까지 떨어졌다.

▲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큐레이션TV'**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는 미국의 넷플릭스까지 한국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신규 IPTV 서비스인 큐레이션TV로 시장 수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자동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폴크스바겐 디젤 연비 조작 의혹이 2000cc에 이어 3000cc 모델에서도 발견되고, 최근에는 휘발유 차량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검증범위를 3000cc와 포르쉐 등으로 확대시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 SK그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5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입원한지 4일만에 퇴원했다. 신회장의 퇴원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내외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등이 동행했다.

▲ 제품의 기획·개발·디자인 등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프로슈머 마케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케아, 유니클로 등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대표 기업이다.

▲ **복고열풍**이 헤어관련 이미용기기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옥션은 복고풍 물결펌의 인기로 관련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48% 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서울시립서북병원의 **간병비**를 대폭 낮추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서북병원의 평균 4~5만원이던 말기 암 환자의 1일 간병비를 4000원으로 낮췄다.

▲ 연말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임원 임기가 대거 만료됨에 따라 대규모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은행의 부행장 이상 임원 68명의 임기가 끝난다.

▲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에 맞춰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이 주거래 우대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KB국민카드와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업계가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등 밴(VAN) 업체에 주던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밴 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 연말 '인사태풍' 거세다

김주하 행장 '농협 최초 연임여부' 시선집중
KB·신한·우리·농협, 임원급 대규모 교체



주요 시중은행의 부행장 이상 임원들이 올 연말 대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각 사

연말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임원 임기가 대거 만료됨에 따라 대규모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은행의 부행장 이상 임원 68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김주하 행장의 연임 여부다. 그동안 농협은행장은 2년 단임제로 연임한 사례가 전무하지만 이번에는 임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의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150% 증가한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김 행장이 처음으로 은행의 손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이달 중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은행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후보군으로는 김 행장을 포함해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 이경섭 농협지주 부사장, 김광훈 상무, 최상록 수석 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밖에 농협은행에선 최상록 수석부행장과 이종훈 여신심사본부 부행장, 김광훈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등의 임기가 연말에 끝난다. 내년 2월까지로 기간을 늘리면 전체 임원 10명 중 절반 이상이 바뀐다.

KB금융 역시 올해 연말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취임 2년째에 접어든 윤종규 KB금융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최근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을 지주사 사장에 내정하면서 윤 회장 경영철학에 따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영만 KB저축은행 사장, 정순일KB부동산신탁 사장, 박충선 KB인베스트먼트 사장, 오현철 KB신용정보 사장, 김윤태 KB데이터시스템 사장, 이희권 KB 자산운용 사장 등 KB금융 자회사 사장의 임기가 올해 연말 만료된다.

국민은행에서는 강문호 여신그룹 부행장, 박정림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허인 경영기획그룹 전무, 김종현 정보보호본부 상무 등 4명의 임기도 올해 말 끝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도 연말인사를 통해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임영진 WM그룹 부행장, 이동환 CIB그룹 부행장, 임영석 기관그룹 부행장, 윤승욱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서현주 영업추진그룹 부행장 등 부행장 5명 전원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또 끝난다. 부행장보 9명 가운데 6명의 임기도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우리은행도 연말 이동건 수석부행장, 남기명 개인고객본부 집행부행장, 권기형 기관고객본부 집행부행장, 김종원 부동산금융사업본부 집행부행장, 박기석 경영기획본부 집행부행장, 김옥정 리스크관리본부 집행부행장 등 6명의 부행장 임기가 만료된다.

KEB하나은행은 김정기·장기용·황종섭·권오훈·이현주 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내년 초 김성미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김도진 경영전략그룹 부행장, 시석중 마케팅그룹 부행장 등 3명의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구조 개편이 큰 화두로 떠올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도입 등의 이슈까지 불거져 연말 임원 교체 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우리은행은 민영화에 전념하기 위해 기존 인사를 유임하는 등 인사교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뜨거운 감자' 계좌이동제 시행 8일… 은행들은?

우대금리 더주고 신용대출도… '주거래 우대'로 적극 구애

'통장·적금·카드·대출' 묶은 패키지 선보여
지방銀들도 특화상품 판매하며 적극 대응



KEB하나은행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이 5만좌를 넘어섰다. /KEB하나은행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에 맞춰 주요 은행이 주거래 우대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기업 주거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 0.6%포인트 금리 우대, 일반 담보대출 대비 최대 60%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한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 2차'를 1조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앞서 9월 1일 통합 KEB하나은행 출범과 함께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한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이 2개월 만에 조기 완전 판매된데 따른 것이다.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은 법인인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상으로 한다.

신용등급별로 최대 연 0.6%까지 금리 우대 및 기존 담보대출 대비 최대 60%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 이상이다.

하나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인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도 출시했다.

하나멤버스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을 통해 최고 0.8%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고 금리는 연 2.7%까지 올라간다.

가장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거래 통장·적금·카드·대출 등으로 꾸려진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ON E라이프 컬렉션'을, 신한은행은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웰리치 주거래 패키지', NH농협은행은 '주거래고객 우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들 상품은 많게는 연 2%대 후반의 이자를 지급하며 고객의 이동을 막고 있다.

지방은행도 민심 잡기에 가세했다.

DGB대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맞춘 특화상품인 DGB주거래우대통장·예금·적금을 판매 중이다.

DGB주거래우대상품은 주거래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계된 각종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꺼번에 주거래통장으로 이동하도록 간소화했다.

급여생활자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고객이 평생 거래하면서 금리 우대, 우대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관계자는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누가 사용해도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래우대통장을 출시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높였다"며 "신규고객과 단골고객 모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내년 증시 '상저하고'… 박스권 계속된다

<上低下高>

국내 7개 증권사 2016 전망

코스피 예상밴드 '1850~2350'

美 금리인상·ECB 양적완화 우려

국내 증시 조정·반등 반복 전망

기업 주주환원 정책 주목

화학·車·전기전자·금융 등

평가가치 낮은 대형주 추천

"상단을 높게 보진 않는다. 상반기에는 수치상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는 반면 실제 경기가 받쳐주지 않아 불안한 시장 흐름이 예상되고, 미국의 금리인상도 신흥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내년 상반기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기업 구조조정 불확실성이 부담요인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등으로 조정과 반등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이다."(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

내년도 증시 전망이 온통 잿빛이다. 기업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미국의 출구전략 노이즈 등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악재가 내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부분 증권사는 내년 코스피 예상밴드를 '1850~2350'의 박스권으로 잡았다. 그나마도 기대되는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IT), 금융 등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 코스피 '상저하고'

5일 삼성·NH투자·현대 등 국내 7개 증권사의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를 집계한 결과 코스피의 하단은 1850, 상단은 2350이었다.

가장 낮은 하단 전망치를 제시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이 1850~2150을, IBK투자증권이 1850~2250을 각각 제시했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3·4분기 들어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노이즈가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1880~2240)과 현대증권(1900~2250), 신영증권(1910~2170)도 올해와 비슷한 등락 범위를 예상했다.

다만 기업 배당 정책이 부각되고 유동성 환경이 호전되면서 상승 국면이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나마 신한금융투자가 예상 타깃을 1900~2350으로 제시하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이경수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다른 의미"라며 "실질적인 유동성 축소는 일러야 2017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이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유동성 공급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IG투자증권은 1830~2150선을 제시했다. 상승 형태는 왼쪽으로 치우친 '유(U)'자형을 예상했다. 윤영교 연구원은 "1·4분기 후반~3·4분기 초반까지는 BOJ의 양적완화 가능성부각과 ECB의 양적완화(QE) 종료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장을 짓누를 것"이라며 "이후에는 미국 생산·투자 활동 정상화와 이에 따른 증시 환경 개선, 국내 내수·수출 증가 등에 기대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밸류에이션 낮은 대형주 뜬다

관심주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대형 가치주를 꼽았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대형주나 가치주 등이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업황이 바닥을 지났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IT), 금융 업종에 대한 관심을 추천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 활력소가 없고 기업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세 상승장은 어렵겠지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평가됐던 대형주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연구원은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 대응을 권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과 그에 따른 주주친화 정책도 증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경수 투자전략팀장은 "SK의 경우 지배구조 변화가 진행된 2006~2007년 시가총액이 287% 증가했다"며 "삼성그룹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국내 주주환원정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외 엔씨소프트와 로엔 등을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신한금융투자는 IT(디스플레이, 2차전지), 헬스케어, 화학 등과 지배구조 관련주를 추천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2016년 코스피 예상 범위>

증권사	코스피	내용
삼성증권	1880~2240	밸류에이션이 낮은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IT), 금융 업종
신한금융투자	1900~2350	IT(디스플레이·2차전지), 헬스케어, 화학 등과 지배구조 관련주
현대증권	1900~2250	분산투자(금융자산 비중 확대)
IBK투자증권	1850~2250	중국 정책 및 소비 관련주, 경기민감주 및 대형주
LIG투자증	1830~2150	금융, 수출주 및 경기소비재
미래에셋증권	–	차별화된 성장기업, ROE안정적인 종목, 주주 환원정책주
NH투자증권	1850~2150	–

자료 : 각 사 취합

‘배출가스 스캔들’ 사실인가? 음모인가?

2015 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❷ 폴크스바겐

2015년에도 지구촌의 주역은 기업이었다. 혁신으로 지구촌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며 지구촌을 충격에 빠뜨린 기업도 있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서며 지구촌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기업도 있었다. 하나하나가 지구촌의 현재 모습과 안고 있는 모순,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메트로신문은 다가오는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지구촌을 달궜던 글로벌기업 10곳을 골라 되돌아본다.

‘공공의 적’ 된 디젤차량 美 ‘디젤차 죽이기’ 결과?

트롤리 전차·GM 전기차 음모론 빠져 결국 포기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신임 회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파문 해결을 위해 책임자를 가혹하게 징계하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교훈을 얻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폴크스바겐 스캔들로 디젤차량은 ‘공공의 적’이 됐다. 폴크스바겐은 ‘클린 디젤’의 선두주자다. 유럽이 힘을 모아 추진해 온 디젤 친화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스캔들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럽이 20여년 동안 해 온 노력은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유럽의 규제가 강화된다. 진짜 ‘클린 디젤’ 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디젤차가 과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디젤차를 죽이고 있는가.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의 주장처럼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 측의 음모인가. 아니면 지난 영국 가디언의 분석(‘폴크스바겐 스캔들로 메이드 인 독일은 타격을 받았나’라는 제하의 기사) 처럼 폴크스바겐 경영진의 부패 탓인가.

전례에 비추어 단기간에 해답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의 경쟁업체가 2008년 토요타 급발진 사태의 배후에 있었다는 증거도 몇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자동차업계가 전기차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확실한 것도 있다. 자동차업계 전반에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무시 풍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세계시장을 석권하려는 대형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폴크스바겐 스캔들을 낳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 ‘규제 무시’ 풍조 만연

미국 자동차업계의 신화적인 인물인 로버트 루츠는 각국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을 비만과의 싸움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는 “비만과 싸우기 위해 의류제조업체에게 옷을 더 작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말이다. 그의 말은 자동차업계에 만연해 있는 생각을 축약하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가장 잘 안다’라거나 ‘규제는 어리석다’라는 생각이다.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터지자 유럽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폴크스바겐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검사결과 데이터를 보면 그들도 역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배출가스 검사시 데이터 조작은 자동차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수십 년 된 관행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15년 지속된 미 자동차 빅3의 ‘스모그 음모’

NYT는 검사 조작을 두고 수십년 된 관행이라고 했지만 자동차업계의 실상은 이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1950년대 초 대도시의 스모그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 내 빅3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는 당국의 규제를 막는 음모를 꾸몄다. 세 업체는 스모그 논쟁의 중심지였던 로스앤젤레스 시를 기만했다. 공공보건을 위해 오염 절감 기술을 연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똘똘 뭉쳐 절감 장치의 개발을 막았다. 관련 연구를 지연시키고 장치 개발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이 음모는 1968년에 가서야 드러났다. 당시 미 법무부는 세 업체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1953년 이후 계속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제어장치의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속된 음모였다. 캐나다의 세계화연구센터는 이에 대해 “대도시 사람들을 독무 속에 가둔 음모”라며 “폴크스바겐 스캔들을 능가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빅3, 치열한 1위 경쟁이 ‘불난 데 부채질’

글로벌 빅3의 1위 경쟁은 이 같은 오랜 관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GM이 파산에 직면한 뒤 GM, 토요타, 폴크스바겐의 1위 경쟁은 치열해졌다. 토요타가 GM의 추락을 기회로 2008~2010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저력을 회복한 GM이 2012년 1위 자리를 탈환한다. 토요타가 2008년 급발진 사태로 2500만대 대량 리콜 사태를 맞은 이유도 있었다. 급발진 사태를 헤쳐 나온 토요타는 2011년 다시 정상을 탈환하고 다음해까지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그 사이에 폴크스바겐의 성장세는 무서웠다. 폴크스바겐은 토요타가 고비를 맞자 바로 2위로 치고 올라왔고, 2014년에는 클린 디젤을 내세워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보스턴대학 투데이(BU Today)는 “이번 스캔들은 토요타를 누르고 싶어하는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진의 집착에서 시작됐다”며 “2015년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은 금도를 넘어서게 됐다”고 꼬집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중국은 왜 위안화 IMF·SDR 편입에 사활을 거나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

준비통화 인정받는 상징 커 환율리스크↓경제안정성↑

중국이 미국 주도 국제금융질서를 위협할 특별인출권(SDR) 편입이라는 또 다른 전리품을 챙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최근 브릭스개발은행(NDB)을 상하이에 출범시키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을 대거 유치하는 등 ‘금융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위안화는 세계 국제결제시장에서 2.79% 비중을 기록, 엔화(2.76%)를 제쳤다. 달러화(44.8%), 유로화(27.2%), 영국 파운드화(8.46%)에 이어 세계 4위다. 2010년만 해도 35위에 머물러 있었다.

◆준비된자가 통화시장 제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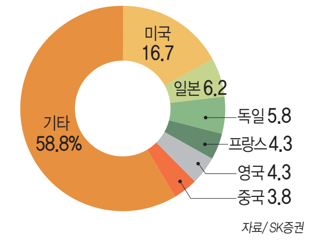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기축통화 논쟁은 2009년 3월 시작됐다. 당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런민은행장은 “어느 특정 국가의 통화(달러화)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달러화가 지배하는 통화시장의 한자리를 내달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69년 도입한 SDR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등을 가중평균해 가치를 결정하는 지불준비 수단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는 또 한번 위상이 흔들린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결과 2010년 11월 단행된 IMF 회원국의 의결권 조정에서 중국의 의결권은 3.65%에서 6.07%로 높아졌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IMF 내 3위 의결권 국가가 된 것이다.

IMF 의결권 비중



2011년 1월에는 미국 방문을 앞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달러 중심의 세계 통화체제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32개 국가와 지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과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대거 참여하면서 미국 주도 금융질서를 흔들고 있다.

대신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위안화 SDR 편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신흥국으로 첫번째 준비통화로 인정받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왜 SDR 편입에 집착하는가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나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에서 자국 화폐가 통용되면 환율 리스크가 줄어들고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자국 통화가 국제 통화로 인정받으면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자국 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도 대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국 통화 국제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

중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이미 장설한 바 있다. 여기에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

달러화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체제에 위안화가 대항해 기축통화를 양분하는 게 목표다.

달러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해온 아시아국가들은 위안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과 미국이 경제패권을 겨루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통화스와프와 직거래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위안화의 사용과 유통을 늘리며 야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기자 kmh@

朴 대통령 "남북 교류확대 적극 뒷받침"

통일준비위 6차회의

8·25합의 빠른 이행 촉구 北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
동북아개발銀 차별성 부각 관련국들 참여 이끌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한 '8·25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당국자는 지난 8월 25일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시기와 장소는 아직 잡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면서 "이산가족 고령화를 감안해 근본적 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북측이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통일준비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협의체 운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과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 전재성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통일외교의 세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제된 민간위원의 아이디어"라며 "북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해 "동북아개발은행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게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며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중·일·러·몽골 등 관련국들을 상대로 참여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의식한듯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면서 "이것(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유연근무제' 확산… 업무만족·가족관계 개선

서울시 참여 직원 급증 지난해 말 1426명 달해

서울시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가족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시 직원은 작년 말 기준 1426명으로 전체의 14.4%에 달한다. 유연근무제 유형별 참여자를 보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가 1245명(87.3%)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루 4~12시간 근무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78명(5.5%), 재택근무제 56명(3.9%), 자택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 1~4일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 43명(3.0%), 주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4명(0.3%)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33명, 여성이 593명이다.

시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은 2010년 52명, 2011년 183명, 2012년 796명, 2013년 1276명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이 시차출퇴근제 5527명, 근무시간 선택제 291명 등 모두 5963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정의 날로 지정된 수요일은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 8시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8시간 근무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7월 6~20일 시 공공부문 종사 직원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유연근무제 참가자 만족도 높아 기반시설 확충·제도 개선으로 확대 유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 중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은 917명, 미참여 직원은 735명이다.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3.5점이었다.

이 중 가족관계 개선(4.0점), 여가시간 증가(3.8점), 건강개선(3.8점) 등 개인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직무 만족도 증가도 3.7점을 받았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계속 하겠다는 응답은 87.4%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97.2%가 참여하겠다고 답해서 육아에서 유연근무제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용(2.9점)이나 출퇴근 비용(2.7점) 등 비용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미참여 직원들도 유연근무제에 대한 호감도가 5.0점 만점에 3.6점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78.5%가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연미란 기자

한·일 '위안부 문제' 물꼬 트나

국장급 협의 일정 조율 중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이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측과 10차 국장급 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다만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에 10차 국장급 협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일이 국장급 협의를 이달 내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채널을 통해 총 9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장급 협의의 우리측 대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다.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이 9차례의 협상을 해오다 최근 후임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지난 6월 8차 협의와 9월 9차 협의가 모두 도쿄에서 열린 만큼 이번 10차 협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연미란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부문 12년 연속1위

자산관리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하여 노후설계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
KB국민은행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에서 설계·상담 서비스 제공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 전수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위한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 통장/적금/예금』부터 각종 연금저축·보험상품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 고객상담부(☎1588-9999) 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가격 싸진 'UHD TV'가 몰려온다

<초고해상도 TV>

1년새 패널 단가 30% 떨어져 내년 TV 판매량 40% 넘을 듯

내년에는 전체 TV 시장에서 초고해상도(UHD) TV의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2016년 UHD TV 패널 수요는 6700만장으로 올해의 약 4000만장(추정치)보다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40%를 점유하면서 풀HD의 점유율 42%와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예측이다.

UHD TV가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9.7㎝(55인치) 오픈셀(모듈 공정을 거치지 않은 반제품 형태) UHD LCD TV 패널의 평균판매가격은 최근 255달러(약 29만원)까지 떨어졌다.

UHD TV 패널과 같은 크기의 풀HD(FHD) 패널 단가 차이가 11%에 불과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약 10% 정도 차이라면 가격을 감내하고 해상도가 월등히 뛰어난 UHD TV를 선택하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TV 해상도는 가로×세로 화소 수에 따라 HD(1366×768), FHD(1920×1080), UHD(3840×2160)로 진화해왔다. 주력제품은 아니지만 4K의 4배 해상도인 8K(7680×4320) TV 시제품까지 선보이고 있다.

약 1년 전과 비교하면 UHD TV 패널 단가는 30% 넘게 떨어졌다. 패널 가격 하락은 중국 패널 생산업체들이 8세대 라인을 대규모 증설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커졌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세계 TV 시장 1, 2위를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같은 패널 가격 하락세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UHD TV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TV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약세지만 이익률이 높은 UHD TV 판매 비중을 늘리며 4·4분기부터 영업이익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HS 측은 "패널 가격 하락은 소비자에게 대화면 TV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자극했다"면서 "아울러 4K 콘텐츠가 더 풍부해질수록 고해상도 패널을 원하는 수요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삼성전자 UHD TV. /삼성전자

SK, 대기업 처음으로 '고용디딤돌' 접수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 몫 내달 중순 합격자 발표

SK그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5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프로그램에 지원할 구직자는 오는 18일까지 SK가 별도로 개설한 사이트(www.skdidimdol.com)에 접속,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인턴 직무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내달 중순쯤 발표될 최종 합격자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디딤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가 취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SK그룹이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인턴십은 SK그룹의 협력사 및 중소·벤처기업과 연계해 진행하기 때문에 협력사와 벤처기업의 구인난까지 해소하는 1석2조의 프로그램이다.

SK그룹은 이번 프로그램에 17개 코스의 맞춤형 직무교육과 SK 협력사 및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68개 직무의 인턴십을 도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0여개의 SK 협력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에너지·화학, 전기전자, 건설 등 14개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또한 이들 협력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인턴직무는 IT·인터넷, 생산과 연구개발, 마케팅, 경영지원 등 68가지에 달한다.

서울·대전·세종지역 ICT 중심 벤처기업도 참여, 평소 벤처나 창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SK가 후원하는 사회적기업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SK그룹은 구직자가 인턴십 참가에 앞서 희망 직무에 대한 기초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인 인턴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직무교육을 마친 뒤에는 구직자가 지원한 참여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게 되고, 참여기업은 인턴의 근무평가를 통해 역량을 검증해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다.

구직자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직무교육 기간 중 월 50만원의 훈련수당, 인턴기간 중에는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SK는 교육과 인턴 과정을 수료한 구직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취업지원금 100만~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SK그룹 인재육성위원회 조돈현 전무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인재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취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5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글로벌챌린저 시상식에서 구본무 LG 회장(왼쪽)이 수상자 대표 김형민씨(연세대 4학년)에게 LG 입사자격증을 전달하고 있다. /LG그룹

LG글로벌챌린저 시상식

구본무 "자신감으로 변화 이끌어달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뜨거운 열정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구본무 LG 회장이 5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글로벌챌린저' 시상식에서 대학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LG글로벌챌린저는 대학(원)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장수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이다.

구 회장은 이 행사에 취임 첫 해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실제로 그는 회장 취임 첫해인 지난 1995년부터 글로벌챌린저 발대식과 시상식에 21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직접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구 회장은 이날도 "세계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여러분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어 무척 흐뭇하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와 발전속도가 빨라진 만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며 "LG는 앞으로도 의지를 지니고 준비된 젊은 이들에게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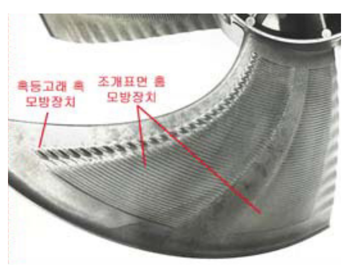
이날 LG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11개팀 44명을 시상했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혹등고래·조개'에게 한 수 배웠다

서울대와 함께 저소음 팬 개발

LG전자(사용철, 최석호 박사, 오시영 선임연구원)와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공학부(최해천 교수, 김주하 박사, 김희수 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혹등고래와 조개의 생물학적 특징들을 모방한 저소음·고효율 팬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소음이 적으면서도 효율이 높은 에어컨 팬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에어컨 팬은 특성상 팬 날개를 따라 복잡한 공기흐름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소음이 증가하고 효율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생체모방 기술을 적용한 LG시스템 에어컨 팬의 모습. /LG전자

LG전자-서울대 공동 연구팀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혹등고래와 조개의 움직임에서 찾았다. 혹등고래는 몸길이 15m, 무게 약 30t 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 지느러미 전단부의 독특한 혹 덕분에 재빠르게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다. 또한 조개 표면의 홈 구조는 조개가 포식자를 맞닥뜨렸을 때 빠르게 도망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생물체의 뛰어난 움직임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생물학적 구조가 주변의 공기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공동 연구팀은 혹등고래 가슴지느러미의 혹 형상과 조개 표면의 홈 구조를 모방한 장치를 에어컨 실외기 팬에 적용해 소음을 2dB A 저감하고 소비 전력을 10% 줄인 신개념 생체모방 팬을 개발했다.

/정은미 기자



삼성전자 '시네 드 셰프 쇼' 영상 공개

삼성전자는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 세계 최정상급 셰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네 드 셰프 쇼' 영상을 5일 공개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15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IFA)'의 삼성전자 '시네 드 셰프 쇼' 행사장에서 이충후·미셸 트로와그로·엘레나 아르삭·임기학 셰프(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전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현실은?

중고차 인기여전… 조작논란 '찻잔속 태풍'?

차딜러들 "가격하락, 평시 수준… 곧 회복 될 듯"
환경부 관계자 "질소산화물, 건강에 치명적" 경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자동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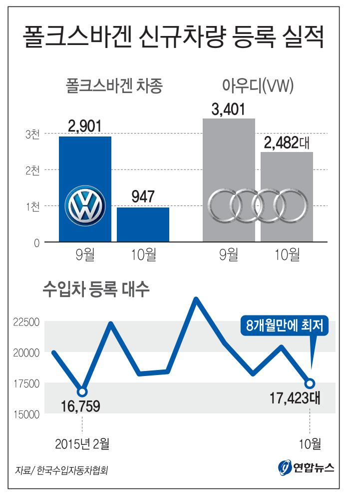
한국 정부는 폴크스바겐 디젤 연비 조작 의혹이 2000cc에 이어 3000cc 모델에서도 발견되고, 최근에는 휘발유 차량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국내 검증범위를 3000cc와 포르쉐 등으로 확대시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존 폴크스바겐 소유주들과 예비구매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폴크스바겐의 중고차 가격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최대 16%까지 급감했다. 반면 국내 중고차 가격은 평균 1.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내 소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환경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5일 자동차 오픈마켓 SK엔카닷컴이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폴크스바겐 시세를 분석한 결과, 2014년형 폴크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배기조작 사태 이후 평균 1.9% (10월 기준) 하락하는데 머물렀다. 같은 기간 2014년형 BMW와 벤츠는 각각 평균 0.5%, 1.0% 하락했다. 여타 수입차와 비교해도 하락폭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파문이 중고차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하다.

SK엔카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시세가 BMW나 벤츠보다 조금 더 하락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하락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가 브랜드 이미지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리콜을 받지 않아도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수입 중고차 딜러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수입 중고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이전보다 디젤 중고차의 인기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폴크스바겐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만큼, 차후 중고차 가격도 점차 회복세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상승하면 미세먼지로 전환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이나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차주가 연비 문제에 관심이 높고 배출가스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양호 회장 '佛 최고 훈장' 대 이었다

레지옹도뇌르 그랑도피시에
부친이어 양국관계 기여 공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도뇌르 그랑도피시에'를 받았다.

지금까지 그랑도시피에 등급의 훈장을 수훈한 한국인은 조회장의 아버지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선대회장으로, 대를 이어 부자가 훈장을 받았다.

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를 직접 수훈했다.

프랑스 정부는 조 회장이 2000년부터 민간 차원의 대불협력창구인 '한·불 최고경영자 클럽'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아 한불 간 경제교류에 기여하고, 2013년부터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측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 훈장을 수여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어 오르세 미술관에 후원을 결정한 점도 인정받았다.

조 회장은 "이번 훈장 수훈은 선친부터 2대에 걸쳐 한·불 관계 발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불간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영광의 군단'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최고 훈장이다. 슈발리에(Chevalier·기사), 오피시에(Officier·장교), 코망되르(Commandeur·사령관), 그랑도피시에(Grand Officier·대장군), 그랑크루아(Grand-Croix·대십자)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순서대로 격이 높다. 이중 그랑크루아 등급은 프랑스 대통령에게만 수여되는 훈장 등급으로, 사실상 그랑도피시에 등급이 최고의 훈장으로 평가받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쏘나타 30년 역사' 재조명 한다

현대차, 내달 6일까지 '헤리티지' 전시회

현대자동차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쏘나타 출시 30주년 기념 전시회 '쏘나타 헤리티지'를 열고 쏘나타가 지난 30년간 만들어온 이야기를 전한다고 5일 밝혔다.

'쏘나타 헤리티지'는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브랜드로 성장한 쏘나타가 고객의 삶과 함께 지나온 시간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모터스튜디오 4층과 5층을 활용해 5층에는 1~4세대 쏘나타를 4층에는 5~7세대 쏘나타를 전시하고 각 세대별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전시해 방문한 고객들에게 쏘나타의 '도전과 혁신'을 선보인다.

특히 4층에 전시된 7세대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는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맞아 출시한 300대 한정 생산 모델로 관람객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쏘나타 출시 30주년 기념 전시회 '쏘나타 헤리티지(SONATA HERITAGE)'를 열고 쏘나타가 지난 30년간 만들어온 이야기를 전한다고 5일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는 전시회 관람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각 세대별 쏘나타를 관람하고 도장을 받아오는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스탬프 랠리' 이벤트 ▲SNS 관람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SK하이닉스
'CDP 명예의 전당'에 3년연속 골드클럽 유지

SK하이닉스는 CDP 한국위원회가 선정하는 'CDP 명예의 전당'에 지난 2013년 국내 기업 최초로 편입된 이후 3년 째 골드클럽 자리를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CDP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이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선정된 기업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 골드클럽에 입성했다. 명예의 전당은 CDP 공개점수 90점 이상, 성과밴드 A- 이상을 획득해야만 유지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속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활동과 탄소라벨링 확대, 친환경·에너지효율적인 제품개발, 대내외 기후변화 인식 확산 등의 노력으로 3년째 골드클럽을 유지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은미 기자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막 올려 올 13번째… 124개국 5281편 출품

국내 최초의 국제 경쟁 단편영화제이자 전 세계 우수 단편영화 축제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집행위원장 안성기)가 5일 열세 번째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는 13년째 영화제를 후원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숙 이사장과 안성기 집행위원장, 그리고 강제규 심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총 124개국에서 5281편의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다 출품기록을 경신했다. 개막작으로는 애니메이션 '어 싱글 라이프', '블러드 브라더스' 등 3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양성운 기자

보고싶은 드라마·영화·다큐, 버튼 한번으로

LGU+, 급변하는 IPTV '큐레이션TV'로 승부

6개 장르·500여개 VOD
가상 채널 형태로 제공
리모콘에 채널 바로가기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큐레이션TV' 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레이션TV란 시청자들이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예상되는데다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넷플릭스까지 한국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신규 IPTV 서비스인 큐레이션TV로 시장 수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예능, 드라마, 영화, 해외 드라마, 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6개 장르를 500여개의 가상 채널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로 쉽고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큐레이션TV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보고 싶은 VOD를 한번에 시청할 수 있도록 드라마, 예능, 영화, 다큐 등의 인기 VOD 를 약 500개의 가상 채널 형태로 구성한 '큐레이션TV'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큐레이션TV는 보고 싶은 VOD 콘텐츠를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VOD를 시청하려면 홈(Home) 메뉴에서 다시보기→방송사→장르→프로그램명→회차 선택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리모컨의 장르별 큐레이션 버튼을 누르거나 본인이 기억한 채널 번호만 누르면 원하는 VOD를 바로 시청할 수 있다.

리모콘에는 8개(예능, 드라마, 영화, 해외드라마, 어린이, 다큐, 유튜브, 가족채널)의 채널 바로가기(핫키) 버튼을 추가했다.

큐레이션TV는 고객들에게 인기있는 VOD를 6개 장르, 500여개를 제공한다. 예능(300번대), 드라마(400번대), 영화(500번대), 해외드라마(600번대), 어린이(700번대), 다큐(800번대)다. 또 장르별 구성에 고객이 선호하는 배우, 시리즈별 전용 가상채널도 마련됐다.

더불어 사용자가 시청한 마지막 시점을 기억해 다른 채널로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언제든 보던 시점부터 이어볼 수 있도록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정규 방송 채널 외에 다양한 장르의 VOD, 유튜브, 가족채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채널가상화기술 관련 8개의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출원 또는 등록했다.

또 스마트폰 등에서 촬영한 동영상, 사진을 TV에서 시청할 수 있는 '가족채널'은 tv G 직캠 앱을 다운받아 999번 채널에서 안내하는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톡을 하듯 쉽게 가족채널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전송된 사진과 영상은 날짜별로 자동 편성돼 채널999번에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다.

큐레이션TV 기능은 IPTV 가입자의 시청 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70%의 고객이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의 채널 주변을 맴돌았고 60%의 고객이 한 시리즈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면 45%는 재방송을 기다리고 30%는 시청을 포기했다. VOD를 선택하는 사람은 25%에 그쳤다.

안성준 컨버지드홈사업부장(전무)은 "큐레이션TV는 보고싶은 VOD를 채널화해 가장 쉬운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맞춘 서비스"라며 "고객 지향적인 미센트릭(Me-centric) 서비스로 IPTV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드라이버' 내년 상반기 중 출시계획

카카오는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구조 등 세부 사항은 서비스 출시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우선 수도권 5개 대리운전 기사 단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등)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카카오드라이버가 갖춰야 할 정책 및 서비스 구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SKT, 현대통신과 손 잡고 홈 IoT 시장 공략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MOU
내년 상반기 45개 제품 출시
대형건설사 제휴 추진 탄력

SK텔레콤이 현대통신과 홈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및 연동제품 출시에 대한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의 제휴는 스마트홈 연동주택 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지속적인 서비스혁신을 추진 중인 현대통신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현대통신은 공동 주택용 홈네트워크 솔루션 국내 공급1위 업체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150여개 건설사에 월패드 기반의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전국 800여개 아파트 단지, 약 100만 가구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주 코엑스에서 열린 'IoT Week' 행사 중 SK텔레콤 부스에 설치된 스마트홈 서비스 전시존에서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TF장(왼쪽 4번째)과 이건구 현대통신 대표이사(왼쪽 3번째)가 만나 협력을 다짐했다. /SK텔레콤

이번 제휴를 통해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돼 외부에서도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폰 제품 등 홈 IoT 제품을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의 입주와 동시에 조명, 냉난방, 도어폰, 스마트플러그 등 다양한 연동기기를 통해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을 모집하고 '스마트홈 연동주택'으로 인증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현대통신과의 사업제휴로 SK텔레콤은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 패키징이 가능해졌으며, 대형 건설사들과의 '스마트홈 인증주택' 제휴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는 약 33개의 가전 제조사,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얼라이언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45개의 연동 제품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 내달 초 대대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센싱(Sensing) 정보와 날씨 등 외부 정보를 연계한 개인 맞춤형 인텔리전트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LG전자 'G비스타2' 미국 출격

美 보급형시장 공략 박차
'LG V10'도 동시 선보여

LG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대화면 스마트폰 'G비스타2(사진)'를 6일(현지시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G3' 디자인에 5.7인치 HD화면을 적용한 'G비스타', 올해 'G4' 디자인에 5.7인치 HD화면과 스타일러스 펜을 적용한 'G4스타일러스'의 아이덴티티를 잇는 'G비스타2'로 미국 보급형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G비스타2는 5.7인치 풀HD 대화



면과 스타일러스 펜을 내장했다. 'G4'의 디자인과 카메라전문가모드, 컬러스펙트럼 센서, 레이저오토 포커스 등 주요 카메라 기능을 그대로적용했다. 대화면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3000mAh 대용량 배터리, 1W 스피커 등도 탑재했다.

LG전자는 이날 'LG V10'도 AT&T를 통해 동시 선보인다. 지난 달 출시한 '넥서스 5X'를 필두로 'LG V10' 'G비스타2'로 하반기 미국시장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SA(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는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5년 2·4분기 점유율 15%로 2014년 연간 점유율 11.7% 대비 크게 증가해 3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카드사 vs 밴… 3000억 협상 시작한다

업계 '수수료 인하' 추진 밴社들 "떠넘기기" 반발

영세가맹점 대상 보급 무료단말기 중단 우려

카드업계가 밴(VAN) 업체에 주던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대표적인 밴 업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내년부터 연간 6700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밴사에 주는 수수료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밴사에 주는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내리면 연간 3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밴 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저항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는 이미 밴사들과 수수료 책정방식 변경 협상에 돌입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연내 줄줄이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제껏 밴사에 정액제(승인 한 건당 수수료 책정)로 수수료를 줬지만 앞으로는 정률제(결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 책정)로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안 등 다양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밴사와의 재협상에 착수하지 않은 카드사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들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삼일회계법인의 밴시장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연간 수수료는 약 86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카드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연간 최대 3000억원의 밴 수수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금융당국이 밴사의 대형가맹점 대상 리베이트를 금지한 만큼 해당 리베이트 비용만큼 밴사도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카드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밴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던 리베이트 비용은 2013년 기준 약 2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밴 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이 같은 수수료 재협상 요구를 두고 "카드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영세업체인 밴사로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밴사에 돈을 주고 매출전표를 수거하고 있지만 무서명 결제가 확대되면 카드사들이 사들이는 전표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리베이트 금지로 밴사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밴 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밴사들 역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무료 단말기 보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밴 수수료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장기간병·사망 동시 보장상품 선보여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

삼성생명은 장기간병과 사망을 동시에 보장하는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을 6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으로 인한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장기간병자금으로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주보험 1억원 가입 시) 장기요양 판정 이전 사망 시에는 1억원을 지급한다.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되면 진단보험금으로 일시금 9000만원을 지급한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5년 이후 생존 시에는 매년 장기요양자금으로 1000만원씩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한다. 장기요양 판정 이후 사망 시는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다.

/이정필 기자

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가상화폐 악용 유사수신 행위 기승

금감원, 소비자 주위 당부 법정통화와 교환도 안돼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한다.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유사수신 업체는 향후 코인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면서 불법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거래되는 민간화폐에 불과해 법정통화와 교환되지 않는다.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보니 정부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인은 기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 또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공인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약점도 존재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즉시 금융감독원 상담 번호인 1332(국번 없이)로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금융개혁 과제, 성과주의 확산에 중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기본 목적은 기업 살리고자 하는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남은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성과주의 확산을 꼽았다. 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해가 만연하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기업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과 관련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영업점 등 금융사의 일선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의견 수렴차 현장에 나가면 규제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규제가 안 바뀐다는 탓을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가 숙지해 내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필 기자

생활 밀착 고객 맞춤형 '다담카드' 출시

KB국민카드, 빅데이터 기반 신상품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KB국민카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두 번째 신상품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서비스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KB국민 다담카드를 5일 출시했다.

이 카드는 6개 생활 밀착 업종 할인과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모두 누릴 수 있는 '원(One) 카드'형 상품이다.

▲연간 카드 이용 실적 연계 '리워드 서비스'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OTP 서비스'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 포인트 재적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동통신요금 ▲주유소 ▲해외가맹점 ▲여행 ▲영화·놀이공원 등 6대 생활 밀착 업종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있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버스·지하철 10% ▲이동통신요금(SKT·KT·LG유플러스)자동납부 등록 시 10% ▲SK주유소 리터당 60원 ▲해외 가맹점(해외직구 포함) 5% ▲맥스무비 영화 예매 1매당 3500원 ▲롯데월드·에버랜드 50% 및 캐리비안베이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KB투어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전월 이용 실적에 관계없이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5000원, 국내외겸용(비자, 마스터) 2만원이다.

/이정필 기자

M&A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키워야

금융투자회사의 역사는 인수·합병(M&A) 역사다.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단기간에 덩치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M&A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M&A가 된 사례가 많지 않다.

증권업, M&A에 길을 묻다 ④ 글로벌 IB역사도, M&A

美선 연평균 22건 발생 韓는 5년에 한번꼴 '대조'

전문가 "국내 증권사들 뭉치면 금융 발전에 큰 도움"

1983년 이래 국내 증권사의 M&A 건수는 고작 17개 뿐(2012년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증권산업 M&A 유인구조 분석)이었다. 5년에 한 번꼴로 M&A가 있었던 셈이다. 당시 우리보다 금융회사 수가 훨씬 적은 미국의 증권사 간 M&A가 매년 평균 22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증권사간 M&A가 거의 없었다고 도 볼 수 있다.

◆글로벌 IB M&A에서 답을 찾다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은 1812년 'City Bank of New York' 이름을 가진 주법은행으로 시작해 2006년까지 총 241건에 이르는 M&A를 거쳐 현재 미국 최대 은행으로 성장했다.

그중 가장 큰 M&A는 1998년 보험, 투자은행, 소매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트래벌러스(Travelers)와의 합병. 이를 계기로 상업은행 업무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업무를 포함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전환하게 됐다.

JP모건,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UBS,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등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중반 상업은행(CB)으로 출발한 JP모건은 월가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2000년 체이스맨해튼은행, 2004년 뱅크원과 합병하며 미국 소매금융시장의 강자로 떠올랐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대대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JP모건은 2009년 3월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를 인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모기지회사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했다.

UBS는 1998년 스위스 양대 금융그룹인 옛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와 SBC(Swiss Bank Corporation)의 합병으로 대형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UBS는 이후 미국의 주요 IB였던 페인웨버(PaineWebber)를 인수해 유럽은 물론 미국의 IB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다. 1989년 영국의 가장 오래된 증권사로 JP모건 계열사였던 모건 그렌펠(Morgan Grenfell) 인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IB사업을 추진했다. 1998년엔 뱅커 트러스트(Banker Trust) 인수와 함께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글로벌 IB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처럼 해외 선진국 IB의 성장 과정에서 보듯 국내 증권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10년 전부터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외쳐 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로 지정된 NH·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 등 5대 증권사의 IB성적은 초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에도 증권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금융투자업자의 기업 금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의 의지만으로 약발이 먹혀들지 의문이다. 실제 정부는 1997년 대량주식 소유제한 규정 폐지, M&A사모펀드 설립 허용, 2007년 자본시장법의 제정 등 M&A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다수의 작은 증권사로 이뤄진 국내 증권산업에서 M&A가 갖는 의미는 크다"며 "증권사 간 M&A가 대형화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내 증권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때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대단히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한국거래소, 협의매매제도 도입키로

수동 구조서 협상 구조로 채권시장의 효율·안정성 ↑ 내년 1·4분기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는 5일 국채 시장과 레포(REPO)시장에 거래 상대방 탐색과 매매 협상이 가능한 협의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매자가 자신의 호가를 낸 뒤 수동적으로 매매 체결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호가창에서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매매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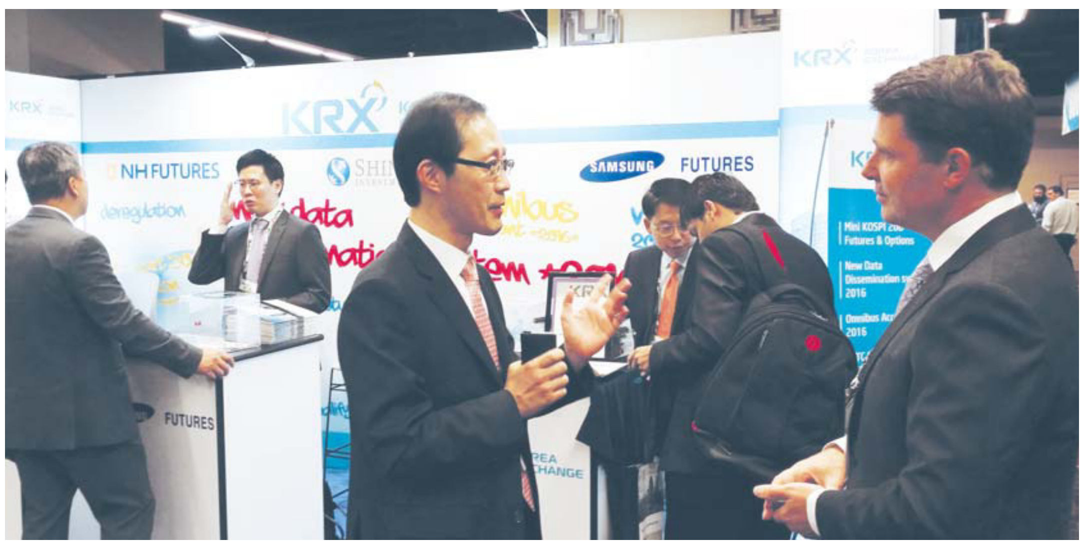
이 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WIT·When Issued Trading)도 이달말께 도입한다.

채권 발행 전(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에 거래가 가능해지면 국고채 전문딜러들은 입찰 전 금리를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되고 금리 급등 시기에 인수물량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도 쉬워진다.

거래소는 비정형 유동화채권(유사ABS),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신종 채권에 대한 장 요건도 마련했다.

/김문호 기자



KRX, 세계 최대 파생상품 엑스포에서 KRX 파생시장 홍보 한국거래소는 3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해 KRX 파생상품 마케팅을 전개한다. 한국거래소 강기원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중앙)이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한 현지 기관투자자에게 KRX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하나금융투자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하나대투증권 38년 만에 이름 바꿔 하나금융그룹과의 시너지 기대 30일까지 고객 페스티벌 진행

지난 9월부터 하나대투증권이 하나금융투자로 이름을 바꿨다. 1980년대를 풍미하던 대한투자신탁이라는 이름은 3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장승철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종합 자산 관리 상품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명 변경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업계 최고의 종합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명변경에 그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과의 시너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를 기념해 11월30일까지 고객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페스티벌은 응모와 사은품 증정으로 구성돼 있다. 응모참여는 홈페이지(www.hanaw.com)를 이용하거나 영업점 내점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옛)하나대투증권의 변경된 사명을 맞추면 응모자격을 준다. 해외상품에 투자, 연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애니 CMA 계좌개설, 개인연금과 IRP 신규가입·이전, 해외주식 계좌개설 등을 통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응모는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총 5회까지 가능하다.

추첨은 12월 11일에 하며 당첨자는 개별통지 된다.

'명품 회사, 명품 고객'을 컨셉으로 금융 회사의 일반적인 경품 이벤트에 비해 파격적인 상품으로 기획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기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호텔 패키지 이용권, 테라스파마사지이용권, 명품자전거, 아이워치, PS4와 고급모니터 세트등이 경품이다. 또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휴대폰거치대, 에코백, 티보틀, 네일케어세트, 고급타올 등 총 2억원 대의 다양한 선물들이 당첨자를 기다리고 있다.

양제신 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으로 고객과 직원, 회사가 함께 행복한 차별화된 일류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와 영업점 및 고객지원실(1588-3111)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공동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19일 오후 2시 한국증권금융 11층 강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29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일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회에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와 한국증권금융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업무를 중심으로 설명할예정이다.

두 회사는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 channel ×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OX FX

쌍문동 660가구 '행복주택' 문 열린다

'경기도 장학관' 부지에 7층·7개동 건립 추진

이달 시의회 계획안 상정 실시협약 등 사업 급물살



쌍문동 행복주택 예정지 위치도.

서울시가 경기도시공사 소유 땅을 임대받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쌍문캠퍼스 경기도 장학관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든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職住) 근접성이 좋은 지역에 짓는다.

올해 처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70%·일반 공급 30%의 비율로 공급된다.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는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20%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각각 10%씩 공급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경기도 장학관 일대 1만9000여㎡ 유휴부지에 최고 7층·7개동 규모 행복주택 66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장학관 일대 부지 행복주택 건립안을 논의했고 올 들어 2~3월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H공사는 이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한 뒤 향후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계획 단계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12월 중 승인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 ▲주거취약계층 10% ▲노년층 10% 등이 입주하게 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70~80% 선에서 공급된다. 아직 입주 대상에게 공급하는 공간(전용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SH공사는 행복주택건립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시공사와의 실시 협약을 거쳐 세부적인 현상설계에 들어간다. 또 자치구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SH는 10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초구 내곡동 도시형생활주택 19~29㎡ 87가구를 비롯해 ▲강동구 강일지구 11단지 29㎡ 346가구 ▲구로구 천왕동 천왕지구 7단지 29㎡ 374가구 등 807세대 행복주택 공급에 나섰다. 내년에는 서울 천왕2지구에서 31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착한 분양가·중도금 혜택까지… '알짜 단지' 주목

일부단지 수요층 공략 계약금 정액제 등 제공

'경주 현곡 푸르지오' 시세보다 평당 100만원 싸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저렴한 단지>

자료: 각 사

단지명	분양가		
	59㎡	70~74㎡	84㎡
용인 한숲시티	1억9350만~2억원	-	2억7120만~2억8240만원
경주 현곡 푸르지오	1억6780만~1억8980만원	2억180만~2억2280만원	2억2780만~2억5780만원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미정(분양 예정 현장으로 주변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		
KTX나주역 힐데스하임	70㎡ 단일 / 1억5590만~1억7550만원		
태전 아이파크	2억5850만~2억7300만원	-	3억4600만~3억6460만원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59㎡ 단일 / 3억3040만~3억7480만원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3.3㎡당 1200만원을 넘어서면서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착한 분양가'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224만원을 기록했다. 9월에 비해 24.4%(240만원) 증가했으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2월 850만원에 비해서는 44%(374만원) 올랐다. 이처럼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물량은 11월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11월에는 10월 5만9000여 가구보다 약 13% 늘어난 6만7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에 인근 도심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된 아파트로 실수요자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수요층 공략을 위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이 제공된다.

지난달 21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경주 현곡 푸르지오' 분양가는 3.3㎡당 750만원대로 2006년~2007년 완공된 현곡면 내 아파트 실거래가 3.3㎡당 860만~880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이에 평균 6.3대 1의 청약경쟁률과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인기에 힘입어 연말까지 대우건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와 현대산업개발 태전 아이파크 등에서 공급 물량이 이어진다.

대우건설은 11월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5BL에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부지를 LH가 제공함에 따라 평균 분양가는 주변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2층~2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 11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전 가구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74·84㎡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74㎡A 478가구, 74㎡B 241가구, 84㎡A 441가구로 지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광주 태전4지구에서 분양 중인 '태전 아이파크' 분양가는 3.3㎡당 평균 1080만원 대로 인근 태전 5·6지구에 분양 중인 단지 3.3㎡당 1115만원에 비해 3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 인접한 분당신도시 전셋값이 3.3㎡당 1151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해당 단지에 내 집 마련 목적의 실수요자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는 최고 25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640가구로 지어지며 전용면적은 5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원건설이 전남 나주 송월택지지구에 분양 중인 KTX나주역 힐데스하임은 인근 타사 분양가에 비해 3.3㎡당 30만원 이상 저렴한 평균 610만원 대로 책정됐다. 10월 전국 평균 분양가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다. 원건설은 계약금 1000만원(1차) 정액제를 채택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한다.

/박상길 기자


힐스테이트 거제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줄서서 입장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거제' 1순위 청약 마감

평균 4.95대 1

현대건설은 지난 4일 '힐스테이트 거제'의 청약을 접수한 결과 전체 9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932명이 몰리며 평균 4.95대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분양 지역에서만 4115명이 청약해 눈길을 끌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42㎡타입으로 평균 27대1을 기록됐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5층, 전체 11개동 104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A 552가구 ▲84㎡B 340가구 ▲119㎡ 146가구 ▲138㎡ 1가구 ▲141㎡ 1가구 ▲142㎡ 1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90만원 대로 책정됐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계약금 분납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의 금융혜택도 부여된다.

청약 당첨자는 11일 발표되며 계약기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평균 20.2대 1로 몰려

삼성물산이 서울 성북구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에 공급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가 전 주택형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일 진행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전체 2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647건이 접수돼 평균 20.2대 1, 최고 5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8년간 성북구에서 분양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로 2004년 래미안뉴타운 6단지 25.4대 1, 2007년 래미안 세레니티 23.62대 1에 이어 세번째다.

전용면적별로는 가구수의 80%를 자치했던 59㎡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그 중 59㎡C타입에 가장 많은 2702건이 접수됐다.

33가구가 공급된 84㎡도 A~E타입이 고루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특히 E타입이 10가구에 579명이 신청해 57.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가구 공급의 109㎡는 21대 1로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추후 청약일정은 12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7~19일 3일간 정당 계약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60%의 중도금 전액은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656만원이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아이 그림으로 봉제인형 만들고 전세계서 디자인 공모하고

소비자 생각을 상품으로… '프로슈머 마케팅' 뜬다

<Producer+Consumer>

이케아·유니클로·암웨이 등 사용자 의견 반영해 인기



이케아는 전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프트토이(봉제인형) 그리기대회를 연다. 이 대회에서 선정된 그림을 토대로 한정판 소프트토이를 제작한다. 사진은 인형으로 제작된 입상작들. /이케아 코리아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는 시대다.

최근 제품의 기획·개발·디자인 등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프로슈머 마케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전까지 제품을 출시한 후 소비자와 소통하기 시작했던 기업들이 제품 기획부터 개발까지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프로슈머 마케팅이 주목받게 된 것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늘려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케아 아이의 그림을 인형으로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아이들 상상 속 동물을 실제 소프트토이로 만드는 '이케아 소프트토이(봉제인형) 그리기 대회'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이케아 소프트토이 그리기 대회는 전세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국내에서도 20개의 그림을 선정해 스웨덴으로 보낸다. 전세계적으로 취합된 그림들은 독창성, 상업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 10개 그림이 인형으로 제작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한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소프트토이 그리기 대회를 기념해 한국에서 선정된 우승자 중 한 명을 내년 봄 스웨덴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지난 2005년부터 글로벌 디자인 콘테스트인 'UTGP (UT Grand Prix, UT 그랑프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디자인을 반영하는 시도를 해왔다. 'UT 그랑프리'는 유니클로의 UT(UNIQLO T-shirt) 디자인 차별화 전략 중 하나로, 매해 특정 테마를 정해 전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스타워즈를 주제로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세계 5218명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총23개 디자인의 UT는 지난 4월 남성용과 키즈용으로 출시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의 유니클로 매장에서 판매됐다. 올해는 '디즈니·픽사' 영화 속 캐릭터들의 우정을 주제로 지난 8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디자인을 모집했다. 이번 우승자에겐 상금 1만 달러(한화 약 1150만 원)를 주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들은 내년에 출시될 '2016 봄·여름 UT'에 포함된다.

◆패키지 디자인도 소비자 참여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소비자 아이디어 모으기에 나선 기업도 있다. 한국암웨이는 여성 생리대 브랜드 '후아(hua)' 제품 패키지 대학생 일러스트 공모전을 두 달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후아 브랜드가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현대 여성상을 표현하는 드로잉 스케치 등의 자유로운 일러스트 작품을 최대 3점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 상금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50만원, 입선 10명에게는 30만원을 준다. 이들 전원에게는 후아 생리대 제품 1년 사용분을 제공한다. 대상 수상 작품은 2016년 5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디자인에 반영된다.

한편 국산 유모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페도라 역시 업계 최초로 소셜디자인(Social design)을 접목했다. 페도라는 유모차, 카시트, 식탁의자 등 유아용품에 실제 유아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의견을 반영한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수능·빼빼로데이… 유통街 신바람

주말쇼핑 가이드

디자이너 초대전 열고 증정·할인 행사도 한창 수험생 등 고객유치나서



이번주말 유통업계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기획전을 대거 마련했다. 또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 기획전도 열린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이달 13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중구 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제3회 로컬푸드 박람회'를 개최한다. 8개 시·군의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해 각 지역 특산물을 시중가 대비 10~15% 할인 판매한다. 분당점에서는 10일까지 6층 행사장에서 '제1회 신진디자이너 초대전'이 진행된다. 가로수길이나 동대문 편집샵의 유명 브랜드 10개 업체가 참여한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은 11일까지 '지오지아 인기상품 특집전'을 진행하고 인기상품들을 최대 80%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8일까지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앞두고 패딩, 모피, 겨울 골프웨어 등 아우터를 할인 판매한다. 압구정본점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5층 대행사장에서 '멘즈 겨울 아우터 제안전'을 진행해 패딩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한화갤러리아명품관은 주말 동안 갤러리아카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단일브랜드 60만·100만 이상 구매시 상품권 3만~5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식품관인 '고메이494'에서는 12일까지 수능 합격 기원 찹쌀떡과 합격엿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수험생 건강을 위한 신선식품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호주산 청정우 인기부위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친환경 배합사료로 키운 '제주 활 광어회', 가을 해부사 사과, 무항생제 계란, 생굴 등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일무, 보라색 당근, 자색 고구마 등의 제철 과일도 할인 판매한다.

빼빼로데이를 맞아 해태 포키 기획 상품, 롯데 빼빼로 기획 상품,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 가데나 초코웨아스 등을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수능 당일 따뜻한 몸으로 수험장에 갈 수 있는 보온도시락, 핫팩, 니트모, 보온병 등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11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에서 '빼빼로데이 수능 응원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또 수험생들을 위한 핫팩, 담요, 방석, USB 온열 발난로, 와이어 귀마개 등도 판매한다.

/김성현 기자 minus@



홈플러스 "맛 좋은 석류 반값에 가져가세요"

홈플러스는 이달 15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신한·삼성·현대 카드 결제 고객에 한해 석류를 50% 할인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할인된 가격은 1250원이다. /홈플러스

롯데百 "더 빨라진 '스마트픽'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은 스마트픽 서비스의 당일 픽업 조건이 완화돼 고객의 상품 수령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스마트픽 서비스는 롯데닷컴, 엘롯데 등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백화점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다. 오후 4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백화점에서 상품 픽업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측은 내달부터는 주문 후 3시간 이내에 픽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의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엘페이'(L.pay)도 롯데백화점 전 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엘페이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전 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김성현 기자

혼자서 돌돌돌… 셀프 '물결펌' 뜬다

연예가 복고열풍에 재조명
고데기·헤어롤로 연출 쉬워
옥션, 이미용 가전 48% 성장



복고열풍으로 이미용 가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몇년 전 드라마 '내조의여왕'에서 배우 김남주가 선보였던 물결펌 등 복고풍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수 간미연과 솔비가 '무한도전'을 통해 방송에 복귀하면서 선보인 헤어스타일이다. 이에 따라 집에서도 혼자 손 쉽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려는 여성들이 늘면서 최근 온라인몰에서도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5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고데기, 헤어롤 등이 포함된 생활·이미용 가전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

특히 물결 모양의 웨이브 판이 장착되어 있는 물결고데기는 전년 대비 27%, 헤어롤·매직기·고데기와 헤어드라이기 판매도 각각 47%, 20% 증가했다.

옥션측은 고데기 같은 가정용 미용기기만 있다면 굳이 큰 돈을 들이며 미용실에 가지않아도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수 있고 실패 확률도 적다는 장점 때문에 '물결펌'기기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한도전에서 물결펌 스타일을 선보인 솔비(왼쪽)와 간미연. /방송캡처

이들 미용기기 중 웨이브 열판이 세개가 붙어 있어 일정한 간격의 물결 웨이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트리플 웨이브 아이론'이 인기다. 또 열판이 360도 자동 회전 돼 금세 볼륨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콘에어 올인원 인스타일러' 구매가 많다.

또 예열 된 다양한 크기의 헤어롤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유닉스 헤어롤 세트'와 함께 컵 모양의 헤어컬을 드라이기에 꽂고 일정량의 머리카락을 넣으면 별다른 기구 없이도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에어헤어컬'도 수요가 많다.

이 밖에도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잦은 열기구 사용으로 손상 된 모발을 관리하기 위한 홈케어 제품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다. 한달 간(10·2~11·1) 모발에 영양 공급과 윤기를 주는 헤어미스트(44%)와 헤어에센스(8%)의 판매가 늘었다.

이 외에도 헤어스타일을 장시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프레이와 글레이즈, 헤어왁스 구매도 많은 편이었다.

옥션 관계자는 "최근 화제가 된 여자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미용실이 아닌 집에서 연출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제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미용기기만 있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동서식품
제주도에 '모카다방' 오픈
김우빈이 직접 서빙 화제



동서식품이 제주도에 다방을 오픈했다. 동서식품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해변가에 이벤트 스토어인 '모카다방'을 열고 5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카다방' 오픈 이벤트 첫날인 5일에는 맥심 모카골드 모델 김우빈이 일일 주인으로 나서 소비자들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우빈이 직접 탄 모카골드 커피를 대접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한 손님을 위해 초상화를 그려주는 '10초 초상화' 이벤트부터 제주도 해변가에서 펼쳐지는 옥상달빛의 미니 콘서트까지 맥심 모카다방을 방문한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와 더불어 '모카다방'에서 경험했던 체험담을 모카골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는 '공감 모카다방' 이벤트도 벌였다. 이벤트에 선정된 소비자들은 여행상품권과 모카골드 머그컵 등 '모카다방'이 준비한 다양한 기념품을 받는다. 맥심 모카다방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신격호 퇴원

전립선비대증 입원 4일만
신동주 내외·신영자 동행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입원한지 4일만에 퇴원했다.

5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신 총괄회장이 이날 오후 평소 지병인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퇴원길에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내외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신 총괄회장은 전립선비대증으로 미열 증상을 보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다. /김성현 기자 minus@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니베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캠페인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니베아가 연말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 캠페인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니베아는 이번 캠페인의 대표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의 '파란통 크림'으로 잘 알려진 니베아 블루틴 크림에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 무늬를 추가한 '하트틴'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또 이번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에 친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마트와 올리브영 일부 매장에서 니베아 크림 틴 뚜껑에 나만의 소중한 사진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니베아 틴'을 제작해주는 '마음 나누기'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엄마와 아이들이 주로 함께 방문하는 키자니아에서도 동일하게 마련된다.

한편, 니베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니베아 페이스북에서도 '마음 나누기'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니베아 홈페이지 (www.nivea.co.kr) 또는 페이스북 (www.facebook.com/nivea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티몬 "17만원이면 김장 걱정 끝"

티몬은 식품 카테고리에서 '김장하는 날' 기획전을 진행하고 6000원 카트할인 쿠폰 등을 이용해 4인 가족 기준 17만830원이면 김장을 담글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전에서는 '땅끝 해남 절임배추' 20kg을 5000원 쿠폰을 적용해 2만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광천 새우젓 추젓' 1kg 1만3000원, '햇 고춧가루' 500g 8300원, '멸치액젓' 1.8ℓ 9900원, '복사꽃 꽃소금' 1kg 2포대는2200원, '햇생강' 1kg 7500원, '깐마늘' 1kg 8900원 등에 판매 중이다. /김성현 기자



미니스톱, 11일까지 원두커피 500원

미니스톱은 이달 11일 까지 미니스톱 자체 브랜드인 '미니카페' 원두 커피를 500원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니카페 커피는 미니스톱과 국내 커피 전문 업체 '쟈뎅'이 공동으로 개발한 커피 브랜드로 점포에 설치된 자동 커피머신으로 원두를 직접 갈아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미니스톱은 행사 기간 미니카페 커피 2종인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를 50% 할인 가격인 500원에 판매한다. /김성현 기자

말기암 환자 1일 간병비 4천원

서울시립서북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간병비 부담 10배 이상 덜어

말기 암 환자의 1일 간병비가 10배 이상 낮춰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평균 4만~5만원이던 말기 암 환자의 1일 간병비를 4000원으로 대폭 낮추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병원의 완화의료병동에 환자 4명당 1명,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월 120~240만원까지 개인 부담하던 간병비를 1일 4000원으로 일괄 적용받게 됐다.

서북병원은 약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시작했다. 24명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완화의료 보조 활동(위생·배설·식사·이동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북병원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시행으로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질 높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기 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존엄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중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선택적 실시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60개 완화의료전문기관 중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북병원 포함 안양·전주·대구의 병원·호스피스 시설 4곳이다. 간병 인력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행 초기 투입 예산 부담이 커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팀, 우수구연상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탄성초음파로 림프부종 단계 구분



배하석 교수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팀(정혜원·서지현 전공의)은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에서 '탄성초음파 영상에 의해 측정된 탄력지수와 림프부종 단계간의 관계' 논문으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탄성초음파는 물체가 외부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했다가 다시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탄성의 원리를 이용한 영상검사법이다.

배하석 교수팀은 탄성초음파를 이용해 림프부종 환자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탄력지수도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배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탄성초음파를 이용한 림프부종의 수치화된 단계 구분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해 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하석 교수는 근골격계 통증 및 암 재활 치료의 명의다. 대한림프부종학회·대한스포츠의학회·대한암재활의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진료와 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포도·망고주스에 쫄깃한 코코넛 젤리

롯데칠성음료

코코포도·코코망고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코코넛 젤리를 넣어 씹는 재미를 더한 젤리 음료 '코코포도'와 '코코망고' 340㎖ 캔 2종(사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기존 포도 및 망고 주스에 쫄깃한 코코넛 젤리를 더한 씹어 마시는 음료로, 색다른 식감과 이색적인 맛을 앞세워 음료 하나를 선택할 때도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출시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젤리, 과육 등을 더해 식감에 변화를 준 음료들이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씹어 마시는 음료가 미각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전환 효과까지 주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 코코포도 제품에 망고맛을 새롭게 더하고 용량도 늘린 340ml 캔 제품을 추가로 선보였다.

코코포도는 상큼한 백포도과즙 10%와 코코넛 젤리 8%가 들어있고, 코코망고는 달콤한 망고과즙 25%와 코코넛 젤리 5%가 함유돼 있다. 두 제품 모두 본연의 과일 맛과 함께 쫄깃한 코코넛 젤리의 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단순히 마시기만 하던 음료가 아닌 씹는 재미까지 더한 퓨전 음료인 코코포도와 코코망고로 색다른 맛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주 타깃인 10~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음회 행사를 펼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제품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국가대표 관광기념품 한 자리에

靑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금상 도자.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6~15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31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세 차례의 심사를 통해 39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청와대 사랑채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역대 대상 수상작들의 사진 17점과 실물 7점, 지자체 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8점을 전시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상작의 상품화에 힘쓰고 있다. 한국관광명품점에 상품을 입점하고 관광 관련 박람회 참가, 판촉과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한화L&C의 PVC 바닥재 소리지움은 친환경성에 보온성까지 갖췄다. /한화L&C

친환경 자재… 에너지 아끼고 스타일 살린다

한화 L&C 겨울 인테리어

'소리지움' 보온·쿠션감 탁월 심플한 '홈샤시' 고급 감각

수은주가 내려가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난방비 등 에너지를 아껴주면서 더 따뜻하고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한화L&C가 5일 겨울 인테리어의 해법을 제시했다.

쌀쌀한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철을 지내야 하는 만큼 건축자재도 기능성과 소재를 중시해야 한다. 바닥재는 피부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만든 바닥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프리미엄 PVC륨 바닥재 '소리지움'은 친환경성을 높인 제품이다. 여기에 한화L&C의 '두배로' 솔루션을 통해 시공하면 기존 기능 대비 더 뛰어난 차음성능(경량충격음 기준)과 습기차단을 통한 보온성과 쿠션감을 제공한다.

바닥재가 인테리어의 시작이라면 창호는 인테리어의 완성이다. 바닥재를 통해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연출한다면 창호로 이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호는 외부와 직접 맞닿는 곳에 시공되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물론 보온과 단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고루 갖춰야 한다.

한화L&C의 창호 통합 브랜드인 '홈샤시'는 시원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단열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업계 최초 전 제품을 '무(無)납(Pb) 창호'로 구성해 기능은 물론, 친환경적 요소까지 갖추고 있다. 가장 최근 출시된 다기능 창호 'SENSE'는 다양한 활용성과 뛰어난 보온성능으로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 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도 가장 높은 1등급(이중창 기준)을 획득했다.

겨울철 환기가 필요하지만 환기 시 에너지 소모가 늘 수 있다. 벽 마감재인 클리보드는 찰흙의 주 원료인 '규조토'로 해 자동 습도 조절과 소취 효과를 갖춘 제품으로 별도의 환기 없이도 공기를 정화해준다.

바닥재와 창호, 벽체를 통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꿨다면, 보닥타일과 칸스톤은 고급스런 디테일을 통해 인테리어의 세련미를 살린다. 특히 한화L&C는 소비자패널 'eLen(엘렌)'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디자인에 대한 수요와 셀프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트렌드리더로서 다양한 신제품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보닥타일은 시공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DIY족(族)들 사이에서 셀프인테리어 필수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독창적이고 심플한 패턴방식을 적용해 비어 보이는 공간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채울 수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아이슬란드 여행서 새 앨범 영감 얻었죠

새 앨범 '그라운드 파트1' 낸
일렉트로닉 듀오 캐스커

캐스커(이준오·융진)의 음악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 두 사람이 함께 선보이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적인 감성이 깊게 배어 있다. 최근 발표한 새 앨범 '그라운드 파트1(ground part 1)'은 그런 캐스커만의 음악적 색깔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이 잘 녹아든 음반이다. 멤버들 스스로도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만족하는 편안함이 귓가를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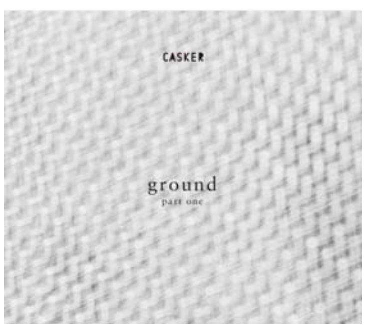
데뷔 이후 2년 간격으로 앨범을 발표해온 캐스커가 '그라운드 파트1'을 내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팬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이었다. 물론 멤버들은 마냥 쉬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준오는 영화음악으로, 융진은 다른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다만 캐스커로 뭉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앨범을 만드는 행위에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는 '음원시장'이라고 하지 '음반시장'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된 영화음악 작업으로 지쳐 있기도 했고요. 전환의 계기가 필요했어요." (이준오)

작업의 의욕을 되찾게 된 것은 이준오가 아이슬란드 여행을 다녀온 뒤였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일이다. "아이슬란드에서 완전히 완충이 됐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일사천리로 앨범 작업을 진행했죠." (이준오) 아이슬란드로 떠나기 전 만들어둔 음악의 단편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만든 노래들을 모아 새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아이슬란드를 갔다 오더니 곡 작업을 다 하고서는 '이제 노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슉' 하고 노래가 나왔죠(웃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서 좋았어요." (융진)

일렉트로닉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생소하게 느껴지던 2000년대 초반 캐스커의 등장은 그야말로 신선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일렉트로닉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르가 아니다. 캐스커로서도 고민이 많았다.

"6집을 만들 때 EDM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더욱 고집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웃음). 그래서 고민 없이 편안하게 작업했어요. 밸런스 면에서는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오) 7곡 밖에 수록되지 않았음에도 앨범이 안정감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 3년만에 선보이는 앨범에
> 데뷔 13주년 공연도 준비
> 계기 필요해 늦어졌을 뿐
> 내년도 쉼없이 활동할 것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바쁘다. 다가오는 7일과 8일 백암아트홀에서 앨범 타이틀을 내건 단독 공연을 갖는다.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캐스커의 음악이 집약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개봉한 '더 폰'에서 영화음악을 맡았던 이준오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화음악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융진은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캐스커와는 전혀 다른 음악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라운드 파트2'요? 서둘러 낸다면 내년에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앨범을 내고는 싶지 않아요. 아마도 융진이의 솔로 앨범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준오)

"솔로 앨범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이제는 진짜 내야할 것 같아요. 오빠가 도와주냐고요? 그럼 다시 캐스커가 되는 거잖아요(웃음)." (융진)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파스텔 뮤직 제공

'양희은式 동행' 힐링콘서트서 듣자

6~8일 연세대학교서 공연

가수 양희은이 7개월 만에 다시 공연으로 돌아온다.

양희은은 오는 6~8일 3일 동안 연세대학교 백양콘서트홀에서 '동행 콘서트-그대가 있음에'를 개최한다. 가을 감성을 담은 공연으로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데뷔 44년을 맞이한 양희은은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싱어송라이터로 후배 가수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5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로 호흡을 맞춘 후배 가수 정인이 7일과 8일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양희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잊혀져 가는 동행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무대를 선사한다. '아침이슬'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상록수'등 주옥 같은 명곡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02-541-7110) /장병호 기자

돌아온 '무서운 이야기' 내년에 만난다

임슬옹·경수진·박정민·홍은희 모여 촬영 한창



임슬옹 경수진 박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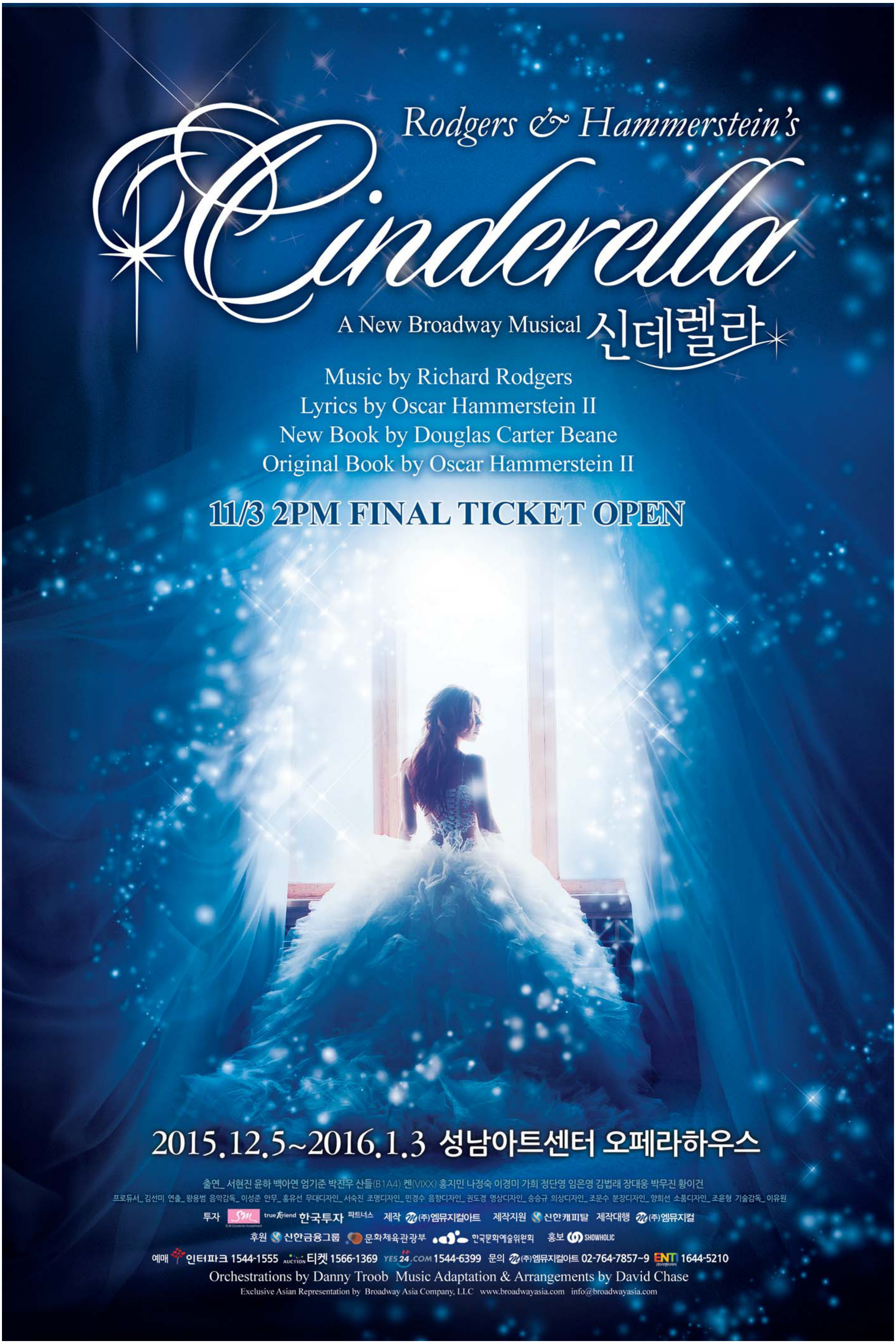
공포영화 시리즈 '무서운 이야기3'(감독 백승빈·김선·김곡·민규동)가 임슬옹·경수진·박정민·홍은희 등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최근 크랭크인했다.

'무서운 이야기3'는 2012년 '무서운 이야기'와 2013년 '무서운 이야기2'에 이어지는 세 번째 옴니버스 시리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로 구성돼 공포를 선사한다. '여고괴담' 시리즈에 이어 두 번째로 3편이 제작되는 한국 공포영화 시리즈다.

이번 작품에서 과거 이야기는 '장례식의 멤버'의 백승빈 감독이 연출한다. '무서운 이야기'에 포함된 단편 '앰뷸런스'를 연출한 김선·김곡 감독이 각각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맡는다. 민규동 감독은 전작들에 이어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엮는 브릿지 연출을 담당한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충무로가 주목하는 배우들이 영화에 출연한다. 그룹 2AM 출신 임슬옹, 드라마 '밀회' '파랑새의 집'의 경수진, '파수꾼' '전설의 주먹' '오피스' 등의 영화에 출연한 박정민이 캐스팅됐다. 또한 드라마·공연·예능 등에서 활약 중인 홍은희가 첫 스크린에 도전한다.

앞서 제작된 '무서운 이야기' 1편과 2편은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로 손꼽히는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와 시체스 영화제에 연속으로 초청됐다. '무서운 이야기'는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무서운 이야기3'는 촬영과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11/3 2PM FINAL TICKET OPEN
2015.12.5~2016.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_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박진우 산들(B1A4) 켄(VIXX) 홍지민 나정숙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무진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투자 SM true friend 한국투자 파트너스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부산’ 향기 물씬 나는 작품 만나자

제1회 부산디자인페스티벌

벡스코서 5일간 열려



동남권 최대 디자인 비즈니스 축제 ‘제1회 부산디자인페스티벌’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국내·외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의 콘텐츠는 물론 부산만의 독특한 감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통해 부산의 풍부한 디자인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다.

‘하비(HOBBY)’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제품·그래픽·패션·뉴미디어·라이프스타일 분야 200여 개 브랜드와 15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특히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브랜드의 참여로 부산만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동시행사로 진행되는 디자인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자인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한다. 장외에서는 부산의 100여 개 디자인 명소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제1회 부산디자인스팟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디나이너스초이스관에서는 김택수·김애주·김유라·박재우·윤숙경·이천희·이세희 등 스타디자이너들이 ‘하비 홈(HOBBY HOME)’을 주제로 공간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글로벌콘텐츠관에서는 디자인과 건축을 테마로 한 영상 6편을 무료 상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페스티벌 홈페이지(www.designfestiva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10월 대박’ 난 문화가 있는 날

전국서 2055개 프로그램 사업이래 최고 성적 올려 “내년엔 지역특성 살릴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0월 진행한 ‘문화가 있는 날’이 사업 시행 이래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총 2055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는 2015년 성과 목표인 2000개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1월 실적(883개)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 관련 빅데이터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영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종전 영화 할인 시간(기존 오후 6시~8시)을 2시간 연장해 오후 5시~9시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전국 309개 참여 영화관에서 ‘그놈이다’ ‘더폰’ ‘마션’ 등 46편의 영화를 총 3049회 할인 상영했다.



문체부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사업 시행 이래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영화였다. 사진은 10월 개봉한 영화 ‘더 폰’의 출연진. /손진영기자 son@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대부의 영화관이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업계의 이러한 동참 분위기가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2015년 목표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 시행 3년차인 2016년에는 참여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1988년 쌍문동 이야기

◆ tvN ‘응답하라 1988’

금·토요일 오후 7시50분



정 많고 사람 좋은 동일네는 덜컥 서준 빚보증이 잘못돼 반지하에 살게 된다. 하지만 가난보다 허구헌날 싸우는 두 딸이 더 걱정이다. 성균네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 그러나 아내 미란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성균이 못마땅하다. 1988년 쌍문동 골목길을 무대로 한 다섯 소꿉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

토요일 오후 5시

오만석과 강예원은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 피크닉에 나선다. 지난번 백허그와 기습 뽀뽀를 떠올린다. 육성재와 조이는 달밤의 한강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곽시양과 김소연은 야구장을 찾는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4시55분

슈의 쌍둥이 딸 라희와 라율이 메뚜기구이를 맛본다. 쌍둥이는 매의 눈으로 메뚜기를 찾아낸다. 또한 메뚜기구이를 맛본 뒤 “맛있다”고 말해 엄마 슈를 놀라게 한다.



◆ JTBC ‘디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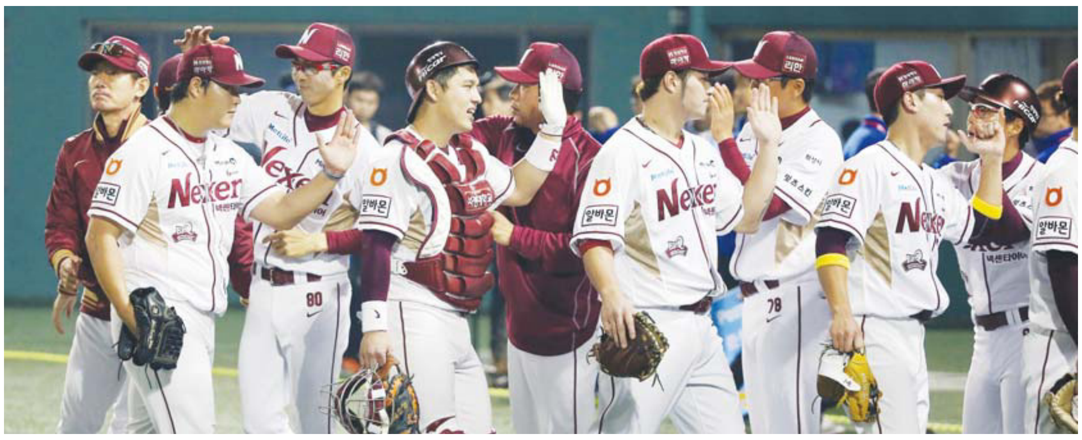
금·토요일 오후 8시30분

해성(김영광)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한다. 박건(이경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빌미로 해성을 더욱 압박해온다. 소율(김정화)은 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죄책감에 빠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7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5:00 2015 K리그 클래식 17:10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19:10 다큐 공감 20:00 운동장 프로젝트 4부작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2:50 2015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갈라 콘서트 23:50 프랑스판 국산으로만 살아보기 24:40 KBS 뉴스	11:30 TOP 밴드 3 12:40 개그 콘서트 (재) 14:15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6: 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 익스프레스 23:50 드라마 스페셜<낯선 동화>	12:00 MBC 뉴스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35 그녀는 예뻤다 (재) 15:50 쇼! 음악중심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2:00 SBS 뉴스 12:10 육룡이 나르샤 (재) 14:30 런닝맨 (재) 15:40 SBS 뉴스 15:50 정글의 법칙 (재) 16:50 토요일이 좋다 <오! 마이 베이비/주먹쥐고 소림사> 20:00 SBS 8 뉴스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더 랠리스트	10: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재) 11:3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3:00 JTBC 뉴스 13:20 송곳 (1~4회 재) 18:00 히든싱어 4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0 송곳 23:00 히든싱어 4	11:40 응답하라 1988 (재) 13:30 수요미식회 (재) 14:50 할매네 로봇 (재) 16: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8:00 응답하라 1988 (재) 19:50 응답하라 1988 21:40 SNL 코리아 시즌6 2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8:50 쿵푸 팬더 2 10:40 7번방의 선물 13:10 어벤져스 16:00 아바타 19:10 도둑들 22:00 명량 24:30 맨 오브 스틸	10:20 백발마녀전:명월천국 12:30 007 스카이폴 15:20 레지던트 이블 5:최후의 심판 17:20 해프닝 19:30 퍼시잭슨과 번개도둑 22:00 두근두근 내인생 24:30 인시디어스:두번째 집
8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특집 KBS 슈퍼클래식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6:10 특선 원양전쟁 최전선을 가다 17:00 KBS 뉴스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7:40 꽃동네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19:10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역사저널 그날 22:30 취재파일 K 23:10 휠체어, 날아 오르다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발칙하게 고고 24:55 발칙하게 고고 (재)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화려한 유혹(재) 15:35 MBC 뉴스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 0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9:30 TV 동물농장 10:50 백종원의 3대천왕 (재) 12:00 SBS 뉴스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재) 15:40 SBS 인기가요 16:15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16:50 일요일이 좋다 18:45 2015 프리미어 12 개막전 <대한민국:일본>일본생중계 21:55 SBS 8 뉴스 22:2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30 자기야–백년손님 (재)	10:50 히든싱어 4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45 송곳 (재) 16:10 히든싱어 4 (재) 18:20 최고의 사랑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송곳 (재) 21:40 송곳 23:00 김제동의 톡투유 24:20 송곳 (재)	10:00 풍선껌 (재) 11: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3:10 SNL 코리아 시즌6 (재) 15:00 콩트앤더시티 (재) 16:00 응답하라 1988 (재) 17:50 응답하라 1988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50 문제적 남자 24:20 응답하라 1988 (재)	08:00 아바타 11:00 드래곤 길들이기 12:50 명량 15:30 기술자들 17:50 맨 오브 스틸 20:40 군도:민란의 시대 23:30 명량	10:00 드래곤 길들이기 12:00 두근두근 내인생 14:30 퍼시잭슨과 번개도둑 17:00 내셔널 트레져2 19:40 백발마녀전:명월천국 22:00 우아한 거짓말 24:20 미트 더 스파르탄



서울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5일 넥센타이어와 메인 스폰서십 연장에 합의하고 재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두산에 승리한 뒤 기뻐하는 넥센 선수들. /연합뉴스

히어로즈, 내년에도 '넥센'

넥센 타이어와 3년 재계약
J트러스트와는 팬 반대로 무산

서울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내년에도 '넥센 히어로즈'라는 명칭을 쓰게 됐다.

히어로즈 구단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넥센빌딩에서 넥센 타이어와 메인 스폰서십 연장에 합의하고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이다. 계약 규모는 비공개지만 기존의 2배 수준인 연간 10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센 타이어와 6년 동안의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을 끝낸 히어로즈 구단은 당초 일본계 종합금융그룹인 J트러스트와 스폰서십 계약을 추진했다. 고척스카이돔으로 이사를 하면서 운영비 부담이 커진 구단 측과 이미지 쇄신을 원하는 J트러스트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심했다. J트러스트는 배우 고소영이 광고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히어로즈 구단이 사실상의 대부업체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해 팬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한 리서치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히어로즈 구단과 J트러스트의 계약에 반대하는 의견은 64.0%로 찬성 11.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히어로즈 구단은 J트러스트와의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구단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했다. 넥센 타이어와 재계약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넥센 타이어의 메인 스폰서십 계약 연장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메인 스폰서 선정 과정에서 보여 주신 넥센 히어로즈 팬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염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좋은 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된 J트러스트 그룹의 경우 팀 스폰서는 물론 국내 프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은 "이번 스폰서십 연장은 넥센 타이어를 응원하는 팬들과 여론에 보답함과 동시에 넥센 히어로즈와의 동반자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기업의 스포츠마케팅이 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다가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굿바이 차두리… 내일 은퇴식

수원과의 슈퍼매치 중
토크쇼서 소감 밝힐 듯



차두리(FC서울)가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에서 은퇴식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열린 2015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에서 인천을 3-1로 꺾고 우승한 뒤 아버지 차범근 전 감독과 함께 기뻐하는 차두리. /연합뉴스

차두리(35·서울)가 7일 슈퍼매치에서 은퇴식을 치른다.

FC서울은 7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에서 주장 차두리의 은퇴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하프타임에 진행될 은퇴식에서는 그동안 차두리가 보여준 활약이 동영상으로 상영된다. 팬 대표가 꽃다발을 증정한다. 또한 미니 토크쇼에서는 차두리가 직접 은퇴소감을 밝힌다.

서울은 경기 전 관중에게 차두리 은퇴 기념품 1만개를 배포한다. 시즌 회원들에게는 차두리 선수카드를 증정한다.

차두리는 2013년 해외 생활을 접고 서울에 입단하면서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생활을 접겠다는 공약을 일찌감치 내세웠다. 지난달 31일 FA컵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정했다.

차두리는 서울 소속으로 통산 114경기에 출전해 2골 7도움을 기록했다. /장병호 기자

구자철·지동원 '유로파리그' 골사냥 나선다

오늘 오전 조별리그 4차전
홍정호, 부상 결장 아쉬워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 공식 홈페이지 제공'

최근 득점포를 가동한 구자철과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이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다.

아우크스부르크는 6일 오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대회 조별리그 L조 4차전 AZ알크마르(네덜란드)와 경기를 치른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아우크스부르크는 1승3무7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1승2패를 기록해 AZ알크마르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뒤져 L조 최하위에 처져 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달 23일 L조 3차전 AZ알크마르 원정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번 홈 경기에서도 그때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구자철과 지동원의 활약을 기대해볼만한다. 구자철은 지난 1일 열린 마인츠와 분데스리가 11라운드 경기에서 2-2로 따라가는 동점골을 터뜨리며 득점포를 다시 가동했다. 지동원도 지난달 29일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2라운드(32강) SC프라이부르크 원정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3-0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또 다른 한국인 플레이어인 홍정호는 직전 마인츠와 경기에서 왼쪽 발목 부상을 해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

한편 유로파리그 C조에 속한 박주호의 소속팀 도르트문트는 FK카발라와 맞붙는다. 부상으로 6주 동안 결장했던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과 안더레흐트 J조 경기 출전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장병호 기자



5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 FC 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경기. 올리비에 지루(아스날·오른쪽)가 슛을 날리고 있다. 이날 뮌헨은 아스널을 상대로 5-1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압도했다

챔피언스조별리그서 5-1로 폭격
아스널은 챔스리그 탈락 위기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 완승을 거뒀다.

바이에른 뮌헨은 5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4차전에서 5-1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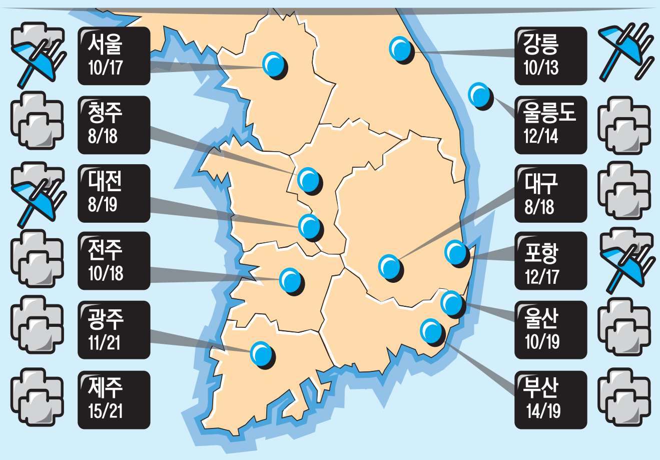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달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당한 0-2의 패배를 깨끗이 설욕했다. 3승1패로 F조 단독 선두를 지켰다. 아스널은 1승3패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다.

아스널은 같은 조 올림피아코스(그리스)가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3승1패가 되면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장병호 기자

날씨

11/6 금 일출시각 07:01 일몰시각 17: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자외선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8		9					2
7	5		3			6		
				5	3		8	1
				9				
9	7		8	1				
		3			4		9	6
6					5		4	8
1								

		2	4					
						6	1	
	1	6		3	2		4	
2			3	9		7		
		8				9		
		7		8	6			3
	2		1	7		3	8	
	9	5						
					8	4		

스도쿠 정답

2	1	9	5	6	7	8	3	4
3	8	6	9	4	1	5	7	2
7	5	4	3	2	8	6	1	9
4	6	2	7	5	3	9	8	1
8	3	1	4	9	6	2	5	7
9	7	5	8	1	2	4	6	3
5	2	3	1	8	4	7	9	6
6	9	7	2	3	5	1	4	8
1	4	8	6	7	9	3	2	5

7	8	2	4	6	1	5	3	9
4	3	9	8	5	7	6	1	2
5	1	6	9	3	2	8	4	7
2	5	1	3	9	4	7	6	8
3	6	8	7	1	5	9	2	4
9	4	7	2	8	6	1	5	3
6	2	4	1	7	9	3	8	5
8	9	5	6	4	3	2	7	1
1	7	3	5	2	8	4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d like you to go over this report

Boss : I'd like you to go over this report.

Young : What is this about?

Boss : It's the sales report for the first quarter. You should summarize it.

Young : Okay. I'll have it ready by tomorrow.

이 보고서 한번 훑어보세요

사장 : 이 보고서 한번 훑어보세요.

영 : 무엇에 관한 것이죠?

사장 : 지난 1·4분기의 판매보고서입니다. 이걸 요약해주셔야 합니다.

영 :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요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is dialogue is about making a contract.
(B) This dialogue is about giving an order.
(C) This dialogue is about writing a letter.
(D) This dialogue is about making a joke.

문법Point

I'd like you to + 동사원형
당신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I'd like to~구문(~하고 싶다)을 이미 익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I'd like you to~ 즉, you가 가운데 들어가서 '당신이~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표현을 익혀보도록 합니다.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하는데 to부정사에서 나오는 동사의 주체가 I가 아니라 You라는 이유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어떤 부탁을 할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계약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B) 지시를 내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C) 편지를 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D) 농담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낯가림이 심한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 마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꼬마꺽지 남자

Q 안녕하세요? 김상회 선생님. 사주 속으로를 잘보고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매일 선생님의 글들을 보며 동경해오다가 용기내어 저의 신청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애를 오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낯가림이 심하고 무척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홀어머니께서도 늘 저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십니다. 제가 사주에 결혼은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희망의 글 부탁드려요.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A 삶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사는 재미를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실존적 사고 체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삶은 괴롭다거나 살만하다 거나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자는 무(無)나 공(空) 이런 식으로까지 진도를 나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즉 무나 공인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공드리는 마음가짐'이기 전에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당장에 절대 주저앉거나 죽을 일은 없다는 신념으로 용기를 고취시키는 역할로 자신을 재조명해보기를 권합니다.

무릇 남자라면 어느 경우에도 처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실천력을 놓아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부모와 새끼를 먹이는 기쁨에 집중해야지 낙담하거나 짜증스레 굴거나 도피한다면 하늘이 돕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삶이 몹시도 팍팍하게 여겨지고 발전이나 부자가 되리라는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하는 이들도 있고 1~2년만 지나면 한결 나아진다고 믿는 이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틀림없는 결과가 보일 것입니다.

수목식신격(水木食神格)이므로 본인의 처신이 식신(食神)의 긍정적인 면은 너그러운 마음과 문학적 소질, 높은 예술적 감각, 풍부한 표현력과 낙천적인 스타일에 별이 되고 반면 적극성과 결단력이 부족하여 남보다 한발 늦은 스타일이 됩니다. 식신(食神)은 나를 구해주는 복신(福神)이 되므로 성품은 온화하고 길신에 해당되지만 온순함이 때론 상대방에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6일 (음 9월 2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 보이니 서둘러 치료하세요. **60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72년생** 남쪽 귀인이 도와 막힌 일이 풀립니다. **84년생** 노력 뒤에 얻은 재물이라 애지중지 합니다.

소 — **49년생**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니 그 손실이 큰 법입니다. **61년생** 자식이 속 썩이겠습니다. **73년생** 과감한 이별이 필요합니다. **85년생** 오늘은 자중함이 좋겠습니다.

호랑이 — **50년생** 큰 일을 도모하기에 앞서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62년생** 동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74년생** 서방과 북방은 흉하니 바라보지도 마세요. **86년생** 닭띠, 개띠와의 동업은 그 끝이 보입니다.

토끼 — **51년생** 예술 계통의 종사자는 길합니다. **63년생** 해 뜨는 곳이 길한 방향이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75년생** 당신의 손에 맞는 반지는 따로 있습니다. **87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세요.

용 — **52년생** 명예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64년생** 매사에 헛물켜지 마세요. **76년생** 점점 호전되는 운세입니다. **88년생** 매사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뱀 — **53년생** 혼자 하기보다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65년생**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77년생** 자신의 재주를 과신마세요. **89년생** 윗 사람과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 **54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66년생**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영광을 부릅니다. **78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입니다. **90년생** 모든 문제는 깊게 고민하고 해결하세요.

양 — **55년생**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직접 해결하세요. **67년생** 여행수가 보입니다. **79년생** 좋은 집을 얻을 기회니 부지런히 다녀보는 게 좋습니다. **91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 —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8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닭 —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9년생** 신중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옵니다. **81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세요. **93년생** 항상 기다려 보세요.

개 — **58년생** 저녁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 당합니다.

돼지 — **5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71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주식 기대수익률을 낮춰라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벌써부터 내년 주식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울한 전망이 많다.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오는 2016년 코스피지수 상단과 하단은 각각 2350포인트, 1850포인트다. 현재 지수를 고려하면 14% 가량 오르거나 10% 가까이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주식시장에서 '큰 장'이 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위안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 상장사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늘릴 것이란 전망은 주식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연 14%면 대박이다. 하지만 10% 가량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주식시장은 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마냥 좋을 수만도, 마냥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위험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방어주나 배당주 등으로 투자대상을 좁히라는 의미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대상 찾기에 바쁘다.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존재한다. 자본시장의 법칙이다. 리스크가 싫다면 원금이라도 보호하고 연 1%대 금리에 만족하는 것이 맞다.

주식은 미래를 사는 것이다.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인내는 필수다. 인내할 수 없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답이다. 높은 수익을 원하면서 언제나 '안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증시와 맞지 않다. 주식투자는 철저히 개인의 결정이고, 책임이다. 주위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사는 사람은 본인이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나도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남 탓이 통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기대하는 수익이 낮으면 손실률도 최소화할 수 있다. 증권사 고객 리스트 가운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저금리시대 기대수익률이 연 3~4% 안팎이라고 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 가운데 수익률이 3~4%에 도달하면 언제든 판다는 의미다.

한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는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중위험 중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것"이라며 "직장인은 물론 자산가들의 노후는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굴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그만큼의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초저금리시대 투자자라면 자신의 목표 수익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안전을 택할지, 조금의 위험을 감수할지가 중요한 잣대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삶은 하루하루가 현실이다. 어제로 돌아갈 수 없고 내일을 미리 볼 수도 없다. 주식도 삶과 똑같다.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사고파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까지 모두 개인의 선택이고, 현실이다.

/파이낸스&마켓부장

아파트 '분양 광풍' 괜찮을까



기자 수첩
박 상 길
<파이낸스&마켓부>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의 매수전환과 각종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오픈된 아파트 분양시장에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인파가 몰려 분양시장 열기가 얼마나 달아올라 있는지를 실감케 했다.

분양 가구수만 6725가구로 국내 역대 최대 단일분양 단지로 한국기록원에 공식 등록된 경기도 용인 처인구 남사면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견본주택은 문을 연 첫 주말 15만명이 다녀갔다. 포스코건설이 전주에서 분양하는 '에코시티 더샵(724가구)'도 주말 4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통상 견본주택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정도 문을 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시간당 6250명·분당 104명, 에코시티 더샵은 시간당 1667명·분당 28명이 방문한 셈이다.

전세 재계약을 위해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지긋지긋한 전세난에 시달린 세입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돌아선 것이다. 정부와 건설사도 이같은 분위기를 읽었는지 연일 쌓아뒀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8만79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3.1%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 누계기준으로 53.7% 증가한 54만140가구가 늘어났다.

착공은 5만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고, 분양은 3만8000가구 증가해 전년에 비해 17.3% 늘었다. 준공(입주)은 3만8000가구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에서 건설업계는 현재 '제로'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금리 부담에 따른 잔금 미납, 입주 포기 등으로 대거 미분양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적절한 수요와 공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요나 공급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미분양 속출로 해당 아파트는 물론 인근 집값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면 현재의 분양 활황은 '폭탄'이 되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sweatsk@

社說

남북한 당국이 만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등 한반도 주변 여러나라들과의 외교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 한반도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남북한은 지난 8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고위급접촉을 통해 대화국면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다시 열렸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체육인 문화인 등의 북한 방문이 잇따르고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도 평양에서 열렸다. 북한의 산림보호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전문가 방문도 이뤄졌다. 국회의원들이 개성을 방문해 고려 유적지 발굴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런 분위기를 남북한 당국 사이의 대화로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교류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남북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찾아내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한은 이미 8월 25일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아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나 진행사항은 전해진 바 없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만 합의되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하겠다. 차제에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먼저 제의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화를 주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는 분단 70년 되는 해이다. 대결에서 화해로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할 때이다.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황혼이혼 시 주의사항은?

소비자 119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 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사

◇남양주시 △슬로라이프과장 황용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진현 △홍보기획과장 용석만

◇이데일리 △KG써닝라이프(구 에프엘씨) 대표이사 여민규

부고

▲이종환씨 별세, 이국명(뉴스백 국장·전 메트로신문 경제부 부장), 이현희(고려대 중일어문과 박사과정)씨 부친상 =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5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63)

▲조응순씨 별세, 고제영(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제백(개인사업)씨 모친상, 최영남(YNC전지 대표) 장모상 = 4일 오후 7시, 인하대병원 영안실 1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 032-890-3180

▲하연병씨 별세, 하태호(경기신문 편집국장)씨 부친상 = 5일 새벽, 효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31-222-0999

▲김학철씨 별세, 김홍기(기호일보 화백)씨 부친상 = 5일 오전 1시, 경북 문경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 ☎ 010-5223-300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